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사회과학분야 문헌의 인용분석 연구

- 경영학·경제학·무역학을 중심으로 -

2009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專攻

元 知 旭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鄭 鎮 植

사회과학분야 문헌의 인용분석 연구

- 경영학·경제학·무역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itation Analysis of Social Science Literature

- Focused on Business Administration·Economics·Trade -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專攻

元 知 旭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鄭 鎮 植

사회과학분야 문헌의 인용분석 연구

- 경영학·경제학·무역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itation Analysis of Social Science Literature

- Focused on Business Administration·Economics·Trade -

위 論文을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專攻

元 知 旭

元知旭의 圖書館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목 차

표 목 차	iii
그림목차	iv
국문초록	v

I. 서론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3. 조사대상지 선정	3

II.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5
2. 해외 선행연구	8

III.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10
2. 저자사항 분석	11
2.1 저자 수	11
2.2 저자의 소속기관	12
3. 주제별 분석	14
3.1 조사대상 문헌의 주제별 분포	15
3.2 인용문헌의 주제별 분포	17
4. 자료형태별 분석	21
5. 언어별 인용 분석	25
6. 인용빈도(수) 및 핵심잡지	26
7. 발행연도별 분석	37
8. 조사대상학술지의 수명 반감기 분석	40
8.1 경영학연구 반감기	41

8.2 경제학연구 반감기	42
8.3 무역학회지 반감기	43
IV.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48
V. 결론 및 제언	56
참고문헌	59
ABSTRACT	62

표 목 차

<표 1> 분석대상 논문 수 및 인용문헌 수	10
<표 2> 학회지별 저자 수	11
<표 3> 저자의 소속기관별 유형	13
<표 4> 학회지의 주제(類)별 분포	15
<표 5> 인용문헌 주제(類)별 분포	18
<표 6> 학회지별 자료형태 구분 현황	23
<표 7> 3개 학회지 연도별 자료형태 현황	24
<표 8> 언어별 종합 분석(2005~2007)	25
<표 9> 경영·경제·무역 국내·외 핵심 잡지군(종합)	29
<표 10> 인용빈도(수)에 의한 학회지별 핵심 잡지군(국내)	31
<표 11> 인용빈도(수)에 의한 학회지별 핵심 잡지군(국외)	32
<표 12> 인용빈도수에 따른 국내외 주요잡지(경영학연구)	33
<표 13> 인용빈도수에 따른 국내외 주요잡지(경제학연구)	34
<표 14> 인용빈도수에 따른 국내외 주요잡지(무역학회지)	35
<표 15> 학술잡지의 이용 빈도	36
<표 16> 학회지별 자료 발행연도별 분포	38
<표 17> 3개학회지 반감기 종합	41
<표 18> 인용연령 대비 인용문헌수와 인용문헌누적수(전체, 단행본)	45
<표 19> 인용연령 대비 인용문헌수와 인용문헌누적수(전체, 학술잡지)	46
<표 20> 저자사항 비교	48

그림 목차

<그림 1> 주제(類)별 분포 현황	16
<그림 2> 인용문헌의 주제(類)별 분포	19
<그림 3> 자료 형태별에 따른 국내·외 문헌 의존도	24
<그림 4> 자료의 생산연대(도)별 분포	39
<그림 5> 3개 학회지 발행연도별 종합 분석	39
<그림 6> 경영학연구 반감기 (국내외, 단행본)	42
<그림 7> 경영학연구 반감기 (국내외, 학술잡지)	42
<그림 8> 경제학연구 반감기 (국내외, 단행본)	43
<그림 9> 경제학연구 반감기 (국내외, 학술잡지)	43
<그림 10> 무역학회지 반감기 (국내외, 단행본)	44
<그림 11> 무역학회지 반감기 (국내외, 학술잡지)	44
<그림 12> 인용연령별 인용문헌수 (전체, 단행본)	47
<그림 13> 인용연령별 인용문헌수 (전체, 학술잡지)	47
<그림 14> 타 주제 분야문헌 인용 분포	49
<그림 15> 자료 형태별 비교	51
<그림 16> 언어별 비교	52
<그림 17> 반감기 비교 분석	54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과학분야의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등 3개 학문 분야를 선정하고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구조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문헌의 형태를 비롯해서 주제별분포분석, 핵심저널분석, 발행연도별 분석, 문헌의 수명 즉, 반감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의 분석결과를 도서관의 장서 보존 및 폐기정책과 정보서비스를 위한 실무지침 설정 및 자료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사회과학분야의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를 조사대상지로 선정,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학회지에 게재된 540편의 연구논문과 22,147건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저자 수는 총 940명이다. 이 가운데 단독연구자는 240명(25.5%)이며 공동연구자는 700명(74.5%)이다. 공동연구에서는 2인 공저 428명(45.5%), 3인 공저 216명(23.0%), 4인 이상 공저 56명(6.0%)으로 2인 공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논문 1편당 저자 수는 평균 1.7명이다. 단독연구보다는 공동연구가 75%로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볼 때 단독연구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면서 공동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자의 소속기관별로는 대학이 817명으로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60명(6.4%), 은행을 포함한 일반기업 36명(3.9%), 정부부처 6명(0.6%)으로 저자들의 대다수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조사대상문헌과 인용문헌의 주제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① 조사대상 문헌 540편의 주제별분포 분석결과 경영과 무역을 포함한 경제학 447편(83%), 법학 21편(3.9%), 전자공학 15편(2.8%), 제조업 7편(1.3%), 심리학 7편(1.3%), 그리고 수학 6편(1.1%)과 기술과학 6편(1.1%) 순이다.

② 인용문헌의 단행본과 학술잡지 19,674건의 주제별 분포는 경제 14,989건(76.2%), 사회학 1,068건(5.4%), 심리학 902건(4.6%), 법학 303건(1.5%), 전자공학 298건(1.5%), 생명공학 203건(1.0%) 순이다.

타 주제분야 의존도는 경영학연구는 30.8%, 경제학연구는 24.1%, 무역학회지는 9.3%순으로 무역학회지에서만은 자기 분야 주제 의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인용문헌 22,147건을 대상으로 자료를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학술잡지 14,139건(63.8%), 단행본 5,535건(25.0%), 보고서 1,083건(4.9%), 학술대회자료 436건(2.0%), 웹자료 320건(1.4%), 학위논문 280건(1.3%) 순이며, 기타는 354건(1.6%)으로 학술잡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언어별로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서반어 순이다. 이 가운데 영어로 쓰여진 문헌이 16,371건으로 약 74%를 차지한 반면, 한국어 문헌은 5,278건 약 24%로 연구자들은 한국어 문헌 보다는 영어로 쓰여진 문헌을 약 3배 정도로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

다섯째, 인용빈도(수) 및 핵심잡지 분석결과 국내 학술잡지의 경우 『경영학연구』가 202회(7.6%)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무역학회지』 154회(5.8%), 회계학연구 95회(3.6%), 국제경영연구 76회(2.9%), 마케팅연구와 재무연구는 동일하게 72회(2.7%)로 나타났다. 국외 학술잡지는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603회(5.2%),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3회(3.6%), Journal of Marketing 401회(3.5%) 순으로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이 가장 호평을 받고 있다.

핵심잡지에서 인용순위 20위안에는 경영학분야 잡지 12개, 경제학 분야 5개, 심리학분야 2개로 경영학분야 잡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여섯째, 발행연도별 분석결과 1759년부터 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장기간에 걸쳐 폭넓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문헌의 반 이상 약 77% 정도가 출판된지 10년 이내의 문헌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용문헌 분석에 의한 반감기는 단행본의 경우 국내는 10.9년이며(수명감소인자 0.9386), 국외는 11.1년(수명감소인자 0.9399)

이다. 학술잡지의 국내 반감기 6년(수명감소인자 0.8923), 국외반감기는 8.2년(수명감소인자 0.9197)으로 국내문헌보다는 국외문헌에서 다소 길게 측정되었다.

I. 서론

1. 연구목적

21c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구상에는 실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의 변화와 함께 학문 또한 다양화, 다변화, 전문화 및 세분화 되면서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학문 간의 장벽을 초월하는 통섭학문인 학제간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연구의 생산성이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방대한 양의 기존 정보 속에 묻혀 재이용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정보관리자의 과제는 정보가 생산되어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동안 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습관적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자들에게까지 노출시켜 이용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 제1차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이용가치가 얼마만큼씩 감소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정보이용가치의 반감기를 측정하는 것이다.¹⁾

연구자들은 연구수행 시 학술잡지에 실린 인용문헌을 통해 선행연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문헌인 경우 하나의 문헌이 다른 문헌을 인용했다는 것은 인용한 문헌과 인용된 문헌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Egghe, 1990).²⁾

인용 분석은 이들 관계를 연구하는 계량서지학의 한 연구 분야로서 과학문헌 간 상호관계의 분석법이 연구되고, 이 분석법을 통하여 방대한 양의 과학문헌 속에 산재해 있는 것 중 핵심적인 논문집단을 가려낼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인용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1) 정진식. 1983. 경제학문헌의 반감기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 L. Egghe, and Ronald Rousseau. 1990. Introduction to informetrics: quantitative methods in library,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인용된 문헌의 이용집중도 파악이 가능하며, 인용된 학술잡지의 순위별 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문헌이용의 퇴조현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인용된 문헌의 주제별 분석, 출판매체의 선호도 등의 파악이 가능(Zunde, 1971)³⁾하기 때문에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정보정책차원에서 인용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조사 및 분석결과에 의해 축적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힘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만큼 도서관 시스템의 여러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사회과학분야 중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등 3개 학문 분야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구조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문헌의 형태, 주제별 분포, 핵심저널 및 인용빈도, 발행연도의 누적비율에 따른 문헌의 반감기 분석을 통해 자료보존 및 폐기정책 실무 지침 설정 및 자료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하는 데에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사회과학분야의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 동안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등 3개 분야의 학회지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이에 게재된 540편의 연구논문과 총 22,147건의 인용문헌을 저자별, 주제별, 문헌의 형태별, 언어별, 인용빈도, 반감기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3) P. Zunde. 1971. "Structural models of complex information sources." *ISR*. 7(1): 1-18.

첫째, 조사대상문헌에 수록된 540편의 연구논문을 저자별, 주제별로 분석 한다.

둘째, 조사대상문헌인 3개 학회지의 연구논문에 참고 된 인용문헌을 계량분석해서 각 학문분야별로 핵심자료 군을 파악하고, 인용문헌의 수명, 즉 반감기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한다.

셋째,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사회과학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인별로 비교 분석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3. 조사대상지 선정

조사대상 3개 학문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잡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3개 학문분야의 교수들의 추천을 통하여 3종의 학회지를 선정하였다. 학술잡지 선정기준은 각 학문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니며, 질적 우수성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학술지로 한다.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3개 학회지의 발간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경영학회의 『경영학연구』는 한국경영학 분야의 학술적 지식 축적에 기여하고자 경영학 전 분야에 걸친 경험적, 개념적 연구논문 등을 게재하고, 또한 한국경영학회 회원들에게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 할 것을 목적으로 1971년에 창간, 년 6회 발간되고 있다.

2)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의 이론, 정책, 역사 및 실정 등에 관한 연구와 보급을 위해 한국의 경제학 연구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1953년에 창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학회지로 년 4회 발간하고 있다.

3) 한국무역학회의 『무역학회지』는 무역에 관한 이론과 정책,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상무, 전자무역, 해외지역연구와 관련된 학술을 조

사 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정책의 제시 및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4년에 창간 6회 발간하고 있다. 3개 학회지 모두 2001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었다.

II. 선행연구

지금까지 밝혀진 선행연구는 대다수가 반감기, 정보원의 의존도, 인용빈도, 인용행태, 문헌의 인용형태, 주제간 상호관계성, 웹-자원의 가치평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국내·외 선행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유경희가 최초로 브룩스(Brookes)의 모델을 통해 과학정보의 수명을 측정하였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의학을 제외한 자연과학분야 112종의 잡지에 발표된 논문 1,514편의 인용문헌 27,72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문헌이 87.2%, 국내문헌 12.8%를 인용하였으며 문헌의 반감기는 국내문헌 1.56년, 외국문헌 8년으로 분석되었다.⁴⁾

서은경, 한인구(1998)는 계량서지학적 분석연구를 통해 회계학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주제, 및 방법론을 분석하였고, 인용 문헌분석을 통하여 회계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인용문헌의 형태, 저자, 학술지들을 파악하였다.⁵⁾

한태천(2000)은 행정학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대구·경북행정학회보』 제1집에서부터 『한국행정논집』 12권 2호까지에 27권에 게재된 31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기초사항, 행정학 연구영역, 행정학 연구방법의 경향 및 인용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별 최고 게재 편수는 15편이며, 순수학술연구가 75.9%,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이 5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영역별로는 지방 및 도시행정, 분야별 정책 및 행정, 행정이론 순으로 게재 되었고 행정학 방법론 및 인사행정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서술적 접근과 통계적 접근의 비율은 62.9% 대 37.1%로 나타났고, 99년 이후 통계적 방법

4) 유경희. 1971. 과학정보의 수명측정에 관한 연구. 『도서관』. 26(7): 4-10.

5) 서은경, 한인구. 1998. 회계학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회계학연구』. 23(3): 183-209.

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학술지 중에서는 한국행정학보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학문의 국내·외 의존도는 60.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⁶⁾

배순자(2001)는 『한국행정학보』를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하여, 연구수행에 관련된 유형과 연구용 참고자료의 유형 및 핵심 학술지와 학술자료의 반감기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행정학 연구는 중진의 교수 및 연구원들의 단독연구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되며 가장 선호하는 참고자료는 해외발행의 학술지이나 상위 학술지간의 점유 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국내의 학술지는 강한 점유 도에 의해 상위 학술지의 구별이 뚜렷하며 반감기는 3.26년으로서, 반감기가 10년이 넘는 해외자료에 비해 훨씬 최신의 자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⁷⁾

조현양, 조현선(2005)은 학회지 수록 논문에 대한 인용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 시 이용한 형태별 정보, 논문별 평균 인용 문헌 건수, 인용된 문헌의 언어, 나이, 그리고 인용된 정보의 반감기에 있어서 분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규명했다. 각 분야의 논문 1편당 평균 인용문헌 건수는 건축분야 13.32건, 기계분야 13.26건, 전자분야 11.08건 그리고 전기 분야 11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학 분야 연구자들은 연도별 구분 없이 영어, 한국어, 일어의 평균 인용비율이 각각 65.75%, 25.72%, 8%로 나타났으나, 건축분야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용비율이 각각 57%, 17%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분석하였다.⁸⁾

김홍렬(2005)은 생명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인용문헌 형태와 국외정보의 의존도를 밝히고, 주제별, 형태별 인용문헌의 출판경과시간에 따른 빈도를 통해서 반감기를 측정하여, 생명과학분야 정보서비스 개발과 장서평가 및 폐기와 관련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목적으로 생명과학분야의 의학, 약학, 식품, 농학 등

6) 한태천. 2000. 한국행정논집 분석-행정학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2(4): 781-802.

7) 배순자. 2001. 국내 행정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관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123-141.

8) 조현양, 조현선. 2005. 주요 4개 공학분야 연구자의 문헌인용 행태 연구. 『정보관리연구』. 36(2): 1-24.

미생물분야의 학술지 기사의 인용문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자료는 학술지였으며, 해외의 존도는 미생물분야, 약학, 의학, 농학 순으로 나타났고, 반감기에서는 농학 분야 8.98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생물분야 7.38년, 식품분야 7.11년, 약학 분야 6.96년, 의학 분야는 6.73년으로 가장 낮게 분석하였다.⁹⁾

오세훈(2005)은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및 인용시기별 분포와 반감기를 조사함과 동시에 타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 및 문헌정보학과 타 학문 분야와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핵심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된 연구 주제가 출현하고 쇠퇴하며, 논문의 주제와 간행시기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피 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와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는 인용 시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며, 반감기는 평균 10년 미만이지만 주제에 따라 반감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¹⁰⁾

조인숙, 한미숙(2007)은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5개 학회지에 게재된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어떤 학술지를 주로 인용하였는지 분석,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를 순위별로 조사하여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지를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독여부를 파악하였다.¹¹⁾

9) 김홍렬. 2005. 생명과학 학술지의 인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85-102.

10)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11) 조인숙, 한미숙. 2007.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학회지 게재논문과 인용학술지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89-105.

2. 국외 선행연구

국외의 최초의 연구는 P. L. K. Gross와 E. M. Gross(1926)는 미국 문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인용문헌 분석을 시도로 각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발전하였다.

Earle과 Vickery(1969)는 1965년에 영국에서 간행된 사회과학 분야의 단행본과 잡지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단행본과 잡지의 인용행태를 조사하였다. 단행본은 전체 인용문헌 가운데 70%, 영어로 기술된 자료가 전체 문헌 가운데 90%로 조사되었으며, 각 자료의 반감기는 단행본 9년, 잡지 6년으로 분석하였다.¹²⁾

中村天理(1970)는 정보 및 도서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학분야의 문헌정보이용조사에서 1962년부터 1966년에 일본에서 발행된 주요학회지 7종의 논문 1,460편, 인용문헌 15,800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문헌의 반감기는 평균 5.8년임을 밝혀냈다.¹³⁾

Summers(1984)는 Journal Citation Reports 1980년 판에 실린 논문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잡지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영향인자 RRIF(Reading Research Impact Factor)를 사용하여 심리학 분야의 주제별 핵심잡지 군을 선정하였다.¹⁴⁾

Sangam(1989)은 1964년부터 1982년까지 인도 카나타 대학(Karnatak University)에서 수여된 심리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 12편에 실린 1,984개의 참고문헌을 형태별, 주제별, 발행국별, 언어별로 분석하고 브래드포드 법칙을 적용하여 핵심잡지 군과 학문의 반감기를 구하였다.¹⁵⁾

12) P. Earle and B.C. Vickery. 1969. "Social science literature use in the U.K. as indicated by ci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25(2): 123-141.

13) 中村天理. 1970. "農學分野における文獻情報利用調査の 展望とCitation countingの展開."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 51-70.

14) G. E. Summers. 1984. "A Review and application of citation analysis methodology of reading research formal literature."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5(6): 332-343.

15) S. L. Sangam. 1989. "Information use pattern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psychology: a citation study." *IASLIC Bulletin*. 34(2): 55-63.

Over(1990)는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1985년판에 수록된 심리학 분야 잡지 중 15회 이상 인용된 564건의 기사에 대한 인용 분석을 통해 인용 저자의 성별을 분석하여 가장 영향력이 높은 기사들이 남성들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가장 영향력이 없는 기사 또한 남성에게 의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¹⁶⁾

Udofia(1997)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5년간 수의학분야의 학술잡지 105종을 대상으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10종의 학술잡지 인용 71%, 가장 이용 빈도가 적은 10종의 학술잡지 인용 65% 분석하였다.¹⁷⁾

Dulle 등(2004)은 1980년부터 1999년의 소코인대학교의 석사논문 259편, 박사논문 21편, 회의자료 309편을 대상으로 탄자니아 농업과학자들의 인용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 박사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박사논문에서 학술잡지 43%, 단행본 25.1%, 회의자료 10.3%가 인용된 것으로 분석하였다.¹⁸⁾

Haycock(2004)은 가장 자주 인용되는 학술잡지 구독을 유지하고, 자료 선택 시 교수들과의 의견교환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미네소타대학교 2000년부터 2002년의 교육학 논문 43편의, 인용 문헌 4,542건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술잡지 57%가 1990년부터 2002년 자료 인용 Educational leadership이 가장 자주 인용된 학술잡지로 74회 인용되었다.¹⁹⁾

16) R. Over. 1990. "The Scholarly input of articles published by men and women in psychology journals." *Scientometrics*. 18: 331-340.

17) Iton Udofia. 1997. "Selecting veterinary periodicals through citation analysis." *Library Review*. 56(2): 105-112.

18) F. W. Dulle et. al. 2004. "Creating a core journal collection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anzania : Citation analysis and user opinion techniques." *Library Review*. 53(5): 270-277.

19) Laurel A. Haycock. 2004. "Citation analysis of education dissertations for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48(2): 14-19.

Ⅲ.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조사대상지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발간된 자료이며 『경영학연구』에는 논문 211편, 인용문헌 12,161건, 『경제학연구』는 논문 96편, 인용문헌 3,171건, 『무역학회지』 논문 233편, 인용문헌 6,815건으로 총 540편의 연구논문과 22,147건의 인용문헌이다.

각 분야 논문 1편당 평균 인용문헌 건수는 『경영학연구』 57건, 『경제학연구』 33건, 『무역학회지』 29건으로 3개 학회지를 종합하면 논문 1편당 평균인용 문헌건수 41.7건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논문의 수는 『무역학회지』가 233편으로 가장 많으나, 참고 된 인용문헌 건수에서는 『경영학연구』가 12,161건으로 『경제학연구』보다는 8,990건, 『무역학회지』보다는 5,346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대상 논문 수 및 인용문헌 수

구분 분야	발표년도	권·호	게재논문 편수	분석대상 인용문헌 수	1편당 평균 건수
경영학연구	2005	34, 1~6	70	4,083	57
	2006	35, 1~6	73	4,789	
	2007	36, 1~7	68	3,289	
	소 계		211	12,161	
경제학연구	2005	53, 1~4	34	1,234	33
	2006	54, 1~4	25	723	
	2007	55, 1~4	37	1,214	
	소 계		96	3,171	
무역학회지	2005	30, 1~6	68	2,211	29
	2006	31, 1~5	68	2,044	
	2007	32, 1~6	97	2,560	
	소 계		233	6,815	
합 계			540	22,147	41.7

2. 저자사항 분석

2.1 저자 수

3개 학회지(『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에 3년 동안 (2005-2007) 수록된 논문 총수는 총 540편이며, 논문의 저자 수는 940명이다. 연구를 수행한 저자의 수를 분석한 결과 2인 공저자 428명(45.5%), 1명의 저자 즉, 단일저자가 240명(25.5%), 다음으로 3인 공저 216명(23.0%), 4인 이상의 저자가 수행한 연구는 56명(6.0%)이나 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저자 비율은 『경영학연구』에서 87.1%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학연구』와 『무역학회지』는 각각 62.7%와 64.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2> 학회지별 저자 수

단위 : 명(%)

주제분야 저자	경영학연구 (211편)	경제학연구 (96편)	무역학회지 (233편)	계
1인(단일저자)	56(12.9)	59(37.3)	125(35.9)	240(25.5)
2인 공저	208(47.9)	68(43.0)	152(43.7)	428(45.5)
3인 공저	138(31.8)	27(17.1)	51(14.7)	216(23.0)
4인 이상 공저	32(7.4)	4(2.5)	20(5.7)	56(6.0)
계	434(100)	158(100)	348(100)	940(100)

1) 경영학연구

조사대상 문헌 분석결과 『경영학연구』(2005-2007)에 수록된 논문은 총 211편, 저자 434명으로 논문 1편당 저자는 평균 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일저자는 56명(12.9%)이며, 공저자는 2인 공저 208명(47.9%), 3인 공저 138명(31.8%), 4인 이상 공저 32명(7.4%) 순으로, 2인 공동연구가 약 50% 정도로 가장 많다.

2) 경제학연구

조사대상 문헌 분석결과 『경제학연구』(2005-2007)에 수록된 논문은 총 96편, 저자 158명으로 논문 1편당의 저자는 평균 1.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일저자는 59명(37.3%)이며, 공저자는 2인 공저 68명(43%), 3인 공저 27명(17.1%), 4인 이상의 공저 4명(2.5%) 순으로 2인 공동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무역학회지

조사대상 문헌 분석결과 『무역학회지』(2005-2007)에 수록된 논문은 총 233편, 저자 348명으로 논문 1편당의 저자는 평균 1.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일저자는 125명(35.9%)이며, 공저자는 2인 공저 152명(43.7%), 3인 공저 51명(14.7%), 4인 이상의 공저 20명(5.7%) 순으로 2인 공동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저자의 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2인 공저 428명(45.5%), 단일저자 240명(25.5%), 3인 공저 216명(23.0%), 4인 이상의 공저 56명(6.0%)으로 2인 공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논문 1편당 저자 수는 평균 1.7명으로 확인되었다. 3개 분야 학회지 모두 2인 공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경영학연구 208명(47.9%), 경제학연구 68명(43.0%), 무역학회지 152명(43.7%)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의하면 경영학연구에서 공동연구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 분야에 비해 경영학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술교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저자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공동연구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학제적 경향과 학문의 복잡성에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 저자의 소속기관

저자의 소속기관을 분석하여 현재 어느 기관에서 경영, 경제, 무역학 분야 연구를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기관별 직군은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정부부처,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 540편에서 조사된 저자의 수는 총 940명으로 이 가운데 대학교 소속 저자의 수는 817명으로 전체의 약

<표 3> 저자의 소속기관별 유형

단위: 명(%)

구분	학회지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	계
대학	경제학부(과)	41 (9.3)	86 (56.2)	76 (21.8)	203 (21.6)
	경영학부(과)	323 (73.6)	18 (11.8)	84 (24.1)	425 (45.2)
	사회과학부	0 (0)	6 (3.9)	0 (0)	6 (0.6)
	무역학부	4 (0.9)	6 (3.9)	128 (36.8)	138 (14.7)
	경제금융학부	0 (0)	4 (2.6)	0 (0)	4 (0.4)
	예술학부	5 (1.1)	0 (0)	0 (0)	5 (0.5)
	물리학과	0 (0)	1 (0.7)	0 (0)	1 (0.1)
	사회교육	0 (0)	1 (0.7)	0 (0)	1 (0.1)
	교육학	0 (0)	1 (0.7)	0 (0)	1 (0.1)
	회계학	11 (2.5)	0 (0)	0 (0)	11 (1.2)
	시스템공학	0 (0)	2 (1.3)	0 (0)	2 (0.2)
	소계	384 (87.4)	125 (81.5)	288 (82.7)	797 (84.7)
	국제대학원	0 (0)	4 (2.6)	8 (2.3)	12 (1.3)
	정보대학원	8 (1.8)	0 (0)	0 (0)	8 (0.9)
연구소(원)	연구기관	21 (4.8)	17 (11.1)	22 (6.3)	60 (6.4)
일반기업	은행	5 (1.1)	3 (2.0)	0 (0)	8 (0.9)
	일반기업	18 (4.1)	1 (0.7)	9 (2.6)	28 (3.0)
정부기관	정부부처	0 (0)	1 (0.7)	5 (1.4)	6 (0.6)
기타	기타	3 (0.7)	2 (1.3)	16 (4.6)	21 (2.2)
계		439 (100)	153 (100)	348 (100)	940 (100)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기관 60명(6.4%), 은행을 포함한 일반기업 36명(3.8%), 정부부처 6명(0.6%) 순이며 기타 21명(2.2%)으로 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학회 회원인 대학교수 이외에도 외부기관 연구자들이 약 13%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의 경우 『경영학연구』는 경영학부 교수들이 73.6%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경제학연구』는 경제학부 교수들이 56.2%, 『무역학회지』는 무역학부 교수들이 36.8%로 소속 학회에 논문을 기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학회지에는 경영학부와 경제학부 교수들의 참여가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타 분야 교수와의 학문적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 잡지에 나타난 저자의 소속기관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 잡지의 명칭 및 성격을 나타내준다. 즉 학술지 성격이 강한 잡지에서는 다른 잡지와 달리 대학 및 연구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용 잡지는 전문직 기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²⁰⁾ 저자의 소속기관이 대학교와 연구기관에 93.3%인 반면, 일반기업의 직장인도 4.0%에 해당되고 있다.

3. 주제별 분석

주제 분석은 타 학문분야와의 관련성을 추적함으로써 학문 간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함이다. 연구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현하고 쇠퇴하며, 간행시기와도 상관성이 있다. 즉, 타 학문분야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고 있다.²¹⁾

전체 인용문헌의 자료유형과는 상관없이 주제 분석을 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인용빈도수가 가장 많은 학술잡지와 단행본만을 주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주제 분석 시 학술 잡지는 지명으로 분류, 단행본은 서명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3개 학회지(경영·경제·무역)의 조사대상문헌과 인용된 참고문헌을 주제별로 분석하고 분포 현황을 통해 학문 간의 상호관계성을 살펴본 것이다.

20) 서은경, 한인구. 전게서. pp.183-209.

21) 오세훈. 전게서. pp.379-408.

3.1 조사대상 문헌의 주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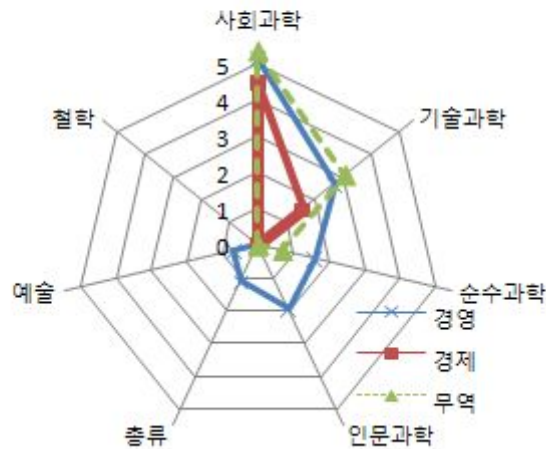
연구자들이 연구수행 시 전공분야 이외에 어떤 분야의 문헌을 주로 접근 또는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학문 간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문헌 총 540편의 논문에 대한 주제 분석은 KDC4판에 의거 유(類), 강(綱)까지 구분(KDC4판에서는 경영과 무역이 사회과학의 320 대 경제학에서 세분되고 있다)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표 4>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영역의 비중은 경영과 무역을 포함한 경제학, 법학, 전자공학 순이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과 심리학, 그리고 수학과 기술과학 순이었다.

<표 4> 학회지의 주제(類)별 분포

단위 : 편(%)

지명 분야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	계
경제 (경영·무역포함)	158(74.9)	85(88.5)	204(87.6)	447(82.8)
법학	18(8.5)	3(3.1)	0(0)	21(3.9)
전자공학	1(0.5)	1(1.0)	15(6.4)	17(3.2)
제조업	1(0.5)	0(0)	6(2.6)	7(1.3)
심리학	7(3.3)	0(0)	0(0)	7(1.3)
수학	5(2.4)	0(0)	1(0.4)	6(1.1)
기술과학	5(2.4)	1(1)	0(0)	6(1.1)
사회학	0(0)	0(0)	5(2.1)	5(0.9)
의학	5(2.4)	0(0)	0(0)	5(0.9)
가정학	2(0.9)	2(2.1)	0(0)	4(0.7)
건축공학	1(0.5)	0(0)	1(0.4)	2(0.4)
교육	2(0.9)	0(0)	0(0)	2(0.4)
총류	1(0.5)	1(1.0)	0(0)	2(0.4)
문헌정보학	2(0.9)	0(0)	0(0)	2(0.4)
생명공학	0(0)	0(0)	1(0.4)	1(0.2)
형이상학	1(0.5)	0(0)	0(0)	1(0.2)
연극	1(0.5)	0(0)	0(0)	1(0.2)
스포츠	1(0.5)	0(0)	0(0)	1(1.2)
정치학	0(0)	1(1.0)	0(0)	1(0.2)
제조	0(0)	1(1.0)	0(0)	1(0.2)
화학공학	0(0)	1(1.0)	0(0)	1(0.2)
계	211(100)	96(100)	233(100)	540(100)



<그림 1> 주제(類)별 분포 현황

 경영	인문과학	3.3%	사회과학	84.4%
	기술과학	7.1%	순수과학	2.4%
	예 술	0.9%	기 타	1.9%
 경제	인문과학	0.0%	사회과학	92.8%
	기술과학	5.2%	순수과학	1.0%
	예 술	0.0%	기 타	1.0%
 무역	인문과학	0.0%	사회과학	89.7%
	기술과학	9.4%	순수과학	0.9%
	예 술	0.0%	기 타	0.0%
경영 · 경제 · 무역	인문과학	1.3%	사회과학	88.1%
	기술과학	7.8%	순수과학	1.5%
	예 술	0.4%	기 타	0.9%

경제학영역이 447편으로 전체연구의 약 83%정도의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법학영역 21편(3.9%), 전자공학영역이 15편(2.8%)정도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는 법학영역이 두 번째 순위로 인용되고 있으나 무역학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공학영역은 무역학회와는 높은 관계성을 보인데 비해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학연구』에서는 심리학 7편(3.3%)이 『경제학연구』에서는 가정학 2편(2.1%)이 『무역학회지』에서는 제조업분야가 6편(2.6%)으로 타 영역보다 약간의 관련성이 있으며, 아주 낮게나마 형이상학과 연극, 스포츠는 『경영학연구』에서만, 정치학, 화학공학은 『경제학연구』에서만 그리고 미미하나마 생명공학은 『무역학회지』에서만 상관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순수과학, 예술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볼 때 『경영학연구』에서는 사회과학 84.4%, 기술과학 7.1%, 『경제학연구』에서는 사회과학 92.8%로 절대적이며 기술과학 5.2%, 『무역학회지』에서는 사회과학 89.7%, 기술과학 9.4%로 3개 학문 분야 모두 사회과학(88.1%)에 집중되고 있으며, 인접 주제로는 미미하나마 기술과학(7.8%)과 가장 높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인용문헌의 주제별 분포

3개 학회지에 실린 학술잡지와 단행본의 인용문헌 총 19,674건에 대한 주제 분석은 조사대상문헌에서와 같이 KDC4판을 적용(KDC4판에서는 경영과 무역이 사회과학의 320대 경제학에서 세분되고 있다)하였으며 유(類), 강(綱)까지만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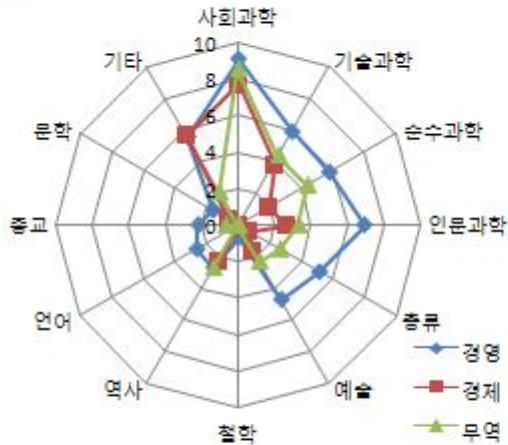
분야별 주제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 경제, 무역학분야에서 공통으로 관심 갖고 있는 핵심 주제 분야는 3개 학회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영과 무역을 포함한 경제학 14,989건(76.2%), 사회학 1,068건(5.4%), 심리학 902건(4.6%), 법학 303건(1.5%), 전자공학 298건(1.5%), 생명공학 203건(1.0%)순으로 경제학 다음으로 사회학 영역과 심리학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용 분석결과 연구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물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과학분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과학, 인문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와의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는 학제적 성격이 나타났다.

<표 5> 인용문헌 주제(類)별 분포

단위 : 건(%)

지명 분야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	계
경제학 (경영·무역포함)	7,865(69.2)	2,116(75.9)	5,010(90.8)	14,989(76.2)
사회학	743(6.5)	239(8.6)	86(1.6)	1,068(5.4)
심리학	870(7.7)	5(0.2)	27(0.5)	902(4.6)
법학	193(1.7)	11(0.4)	99(1.8)	303(1.5)
전자공학	232(2.0)	12(0.4)	54(1.0)	298(1.5)
생명과학	181(1.6)	7(0.3)	15(0.3)	203(1.0)
문헌정보학	167(1.5)	2(0.1)	14(0.3)	183(0.9)
교육학	154(1.4)	4(0.1)	23(0.4)	181(0.9)
형이상학	149(1.3)	9(0.3)	0(0)	158(0.8)
통계학	65(0.6)	0(0)	48(0.9)	113(0.6)
기계공학	66(0.6)	7(0.3)	0(0)	73(0.4)
역사	45(0.4)	3(0.1)	19(0.3)	67(0.3)
오락(운동)	51(0.4)	0(0)	8(0.1)	64(0.3)
연극(영화)	62(0.5)	5(0.2)	1(0.02)	63(0.3)
정치학	17(0.1)	13(0.5)	33(0.6)	63(0.3)
보건(의료)	45(0.4)	9(0.3)	1(0.02)	55(0.3)
기술과학	11(0.1)	9(0.3)	28(0.5)	48(0.2)
동물학	42(0.4)	0(0)	0(0)	42(0.2)
지리	15(0.1)	10(0.4)	15(0.3)	40(0.2)
풍속	36(0.3)	4(0.1)	0(0)	40(0.2)
수학	32(0.3)	0(0)	5(0.1)	37(0.2)
물리학	7(0.1)	0(0)	12(0.2)	19(0.1)
사회과학	4(0.04)	0(0)	13(0.2)	17(0.1)
언어	14(0.12)	0(0)	1(0.02)	15(0.1)
종교	7(0.1)	0(0)	2(0.04)	9(0.05)
문학	5(0.04)	2(0.1)	1(0.02)	8(0.04)
건축	7(0.1)	0(0)	0(0)	7(0.04)
공학	0(0)	7(0.3)	0(0)	7(0.04)
윤리학	2(0.02)	3(0.1)	0(0)	5(0.03)
충류	5(0.04)	0(0)	0(0)	5(0.03)
논리학	2(0.02)	0(0)	0(0)	2(0.01)
비교종교	2(0.02)	0(0)	0(0)	2(0.01)
의학	2(0.02)	0(0)	0(0)	2(0.01)
식물학	0(0)	0(0)	1(0.02)	1(0.01)
예술	0(0)	0(0)	1(0.02)	1(0.01)
기타	264(2.3)	310(11.1)	8(0.1)	582(3.0)
계	11,362(100)	2,787(100)	5,525(100)	19,674(100)



<그림 2> 분야별 인용문헌의 주제(類)별 분포

 경영	인문과학	9.0%	사회과학	79.7%
	기술과학	3.2%	순수과학	2.9%
	예 술	1.0%	기 타	4.2%
 경제	인문과학	0.5%	사회과학	85.8%
	기술과학	1.7%	순수과학	0.3%
	예 술	0.2%	기 타	11.5%
 무역	인문과학	0.5%	사회과학	95.6%
	기술과학	1.5%	순수과학	1.5%
	예 술	0.3%	기 타	0.6%
경영 · 경제 · 무역	인문과학	5.4%	사회과학	85.0%
	기술과학	2.5%	순수과학	2.1%
	예 술	0.7%	기 타	4.3%

3개 학회지 모두 경제학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에서는 심리학 870건(7.7%)과 사회학 743건(6.5%)이, 『경제학연구』에서는 사회학 239건(8.6%) 그리고 정치학과 전자공학이 각각 13건(0.5%)과 12건(0.4%)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무역학회지』에서는 법학 99건(1.8%)과 사회학 86건(1.6%)으로 각 학문별로 선호하는 주제영역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주제 분야 의존도를 살펴보면, 『경영학연구』는 30.8%, 『경제학연구』는 24.1%, 『무역학회지』는 9.3%순으로 나타났다. 『무역학회지』는

타 분야보다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자기 주제 분야문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회지별 인용문헌 주제 분포를 살펴보면 『경영학연구』는 인용문헌 총 11,362건을 대상으로 주제를 분석한 결과 경영, 무역을 포함한 경제학 7,865건(69.2%)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심리학 870건(7.7%), 사회학 743건(6.5%), 전자공학 232건(2.0%), 법학 193건(1.7%)으로 전적으로 경제학 분야의 자료를 참고하면서도 비교적 골고루 다양한 주제 분야의 문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연구』는 인용문헌 총 2,787건을 대상으로 주제를 분석한 결과 경제학이 2,116건(75.9%)으로 과반수가 넘는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학 239건(8.6%)과 정치학분야 13건(0.5%)의 주제로 나타났다. 주제별 분포에서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인 주제 분야는 역사분야 3건(0.1%), 윤리학 3건(0.1%), 문학 2건(0.1%), 문헌정보학 2건(0.1%) 등으로 주제 인접선상에서는 멀지만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무역학회지』는 인용문헌 총 5,525건을 대상으로 주제를 분석한 결과 경제학이 5,010건(90.7%)으로 절대적 높은 수치를 보이며 연구자들은 자기 주제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주제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만 법학 99건(1.8%), 전자공학 54건(1.0%), 통계학 48건(0.9%), 정치학 33건(0.6%) 등의 인용으로 인문학 분야와 공학 분야의 주제가 고루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순수과학, 예술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볼 때 『경영학연구』에서는 사회과학 79.7%, 인문과학 9.0%의 주제 영역분포, 『경제학연구』에서는 사회과학 85.8%의 주제 영역표시, 『무역학회지』에서는 절대 다수의 주제영역이 표시된 사회과학 95.6%로 이들 3개 분야 학회지명대로 사회과학의 주류 주제영역과 협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개 학문 분야 모두 경영, 경제, 무역학의 학문의 고유특성에 의한 사회과학(85.0%)에 크게 치우쳐 있으며 인접 주제 분야로는 인문과학과 기술과학이 각각 5.4%와 2.5%로 분포되고 있다.

조사대상문헌과 인용문헌의 주제를 비교하면 큰 틀 안에 있는 주류

의 주제영역은 사회과학 영역으로 같았으나, 인접 주제 영역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문헌의 사회과학분야의 주제영역과 함께 기술과학의 주제영역이 분포 되어있었으나 인용문헌의 주제영역 분석은 인문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형태별 분석

인용된 총 22,147건의 인용문헌을 조사하여 각각의 자료유형을 단행본, 학술잡지, 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대회자료, 웹자료, 기타로 구분하였다. 백과사전과 회의자료 및 신문자료 등은 기타에 포함된다.

각 학회지별 자료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경영학연구』학회지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자료형태별 인용률은 학술잡지 9,129건(74.8%), 단행본 2,233건(18.3%), 보고서 311건(2.5%), 학술대회자료 264건(2.2%), 학위논문 109건(0.9%), 웹자료 86건(0.7%), 기타 76건(0.6%) 순이다. 기타 문헌에는 신문자료, 회의자료, 보도자료 및 미간행자료 등이 속한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 시 학술잡지를 주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문헌 의존도에서는 학술잡지와 단행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보고서, 학술대회자료, 학위논문 등에서는 국내자료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학연구』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자료형태별 인용률은 학술잡지 1,665건(52.3%), 단행본 1,122건(35.3%), 보고서 234건(7.4%), 학술대회자료 64건(2.0%), 학위논문 43건(1.4%), 웹자료 14건(0.4%), 기타 40건(1.3%) 순이다. 기타문헌에는 신문자료, 회의자료, 보도자료 및 미간행자료 등이 속한다.

국내·외 문헌의존도에서는 단행본의 경우 국외문헌 730건(33.0%)보다는 국내문헌 392건(40.4%)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술잡지에서는 국내 387건(39.9%)인데 비해 국외 1,278건(57.8%)으로 국외 학술잡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 시 학술잡지와 단행본을 주정보원으로 참고하고 있으나 학술잡지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문헌을 비교하면 국내문헌은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참고 되는 비율이 대등소이하게 나타났으나, 국외문헌은 학술논문이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학회지』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자료형태별 인용률은 학술잡지 3,345건(49.5%), 단행본 2,180건(32.3%), 보고서 538건(8.0%), 웹자료 220건(3.3%), 학위논문 128건(1.9%), 학술대회자료 108건(1.6%), 기타 238건(3.5%) 순이다. 기타 문헌에는 신문자료, 회의자료, 보도자료 및 법률자료 등이 속한다. 무역학분야의 연구자들도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 수행 시 단행본 보다는 학술잡지를 주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분석 할 수 있다.

국내·외문헌의 의존도에서 단행본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술잡지에서는 국외문헌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개 학회지에 인용된 문헌을 자료형태별로 보면 학술잡지의 인용률이 14,139건(63.8%)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행본 5,535건(25.0%), 보고서 1,083건(4.9%), 학술대회자료 436건(2.0%), 웹자료 320건(1.4%), 학위논문 280건(1.3%) 순이며, 기타 354건(1.6%)으로 나타났다. 3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수행에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자료는 학술잡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외 문헌의존도에서는 학술잡지를 비롯해서 보고서, 웹자료에서만 국외문헌이 높게 나타났고, 단행본을 비롯한 학술대회자료, 학위논문 등에서는 국내자료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내·외 단행본은 활용률이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학술지의 활용도는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웹자료와 신문, 회의자료, 보도자료 및 미간행 자료 등의 기타자료 활용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7, 그림 3 참조).

<표 6> 학회지별 자료형태별 구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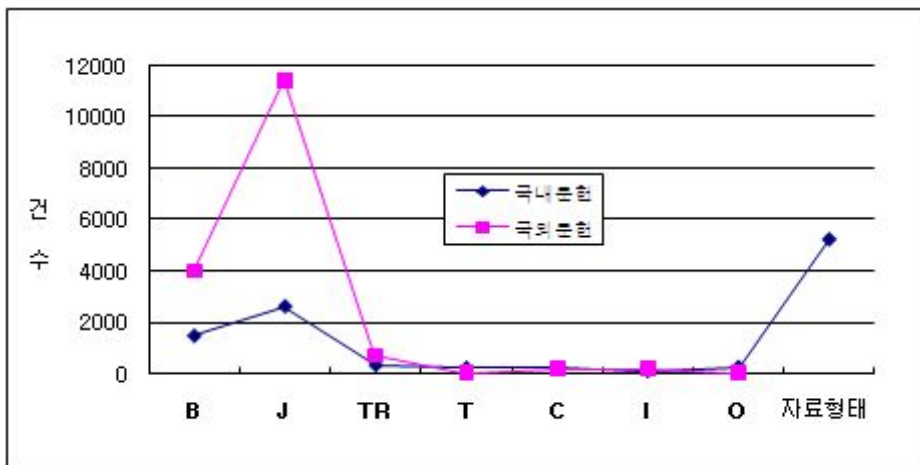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유형	분야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3개 학회지 종합		합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단행본		333 (16.8)	1,900 (18.5)	2,233 (18.3)	392 (40.4)	730 (33.0)	1,122 (35.3)	762 (32.7)	1,418 (32.1)	2,180 (32.3)	1,487 (28.1)	4,048 (24.0)	5,535 (25.0)
학술잡지		1,258 (63.4)	7,871 (77)	9,129 (74.8)	387 (39.9)	1,278 (57.8)	1,665 (52.3)	1,006 (43.2)	2,339 (52.8)	3,345 (49.5)	2,651 (50.2)	11,488 (68.1)	14,139 (63.8)
보고서		107 (5.3)	204 (2.0)	311 (2.5)	80 (8.2)	154 (7)	234 (7.4)	151 (6.5)	387 (8.7)	538 (8.0)	338 (6.4)	745 (4.4)	1,083 (4.9)
학위논문		70 (3.5)	39 (0.4)	109 (0.9)	38 (3.9)	5 (0.2)	43 (1.4)	116 (5.0)	12 (0.3)	128 (1.9)	224 (4.2)	56 (0.3)	280 (1.3)
학술대회 자료		115 (5.8)	149 (1.5)	264 (2.2)	45 (4.6)	19 (0.9)	64 (2.0)	65 (2.8)	43 (1.0)	108 (1.6)	225 (4.3)	211 (1.3)	436 (2.0)
웹자료		35 (1.8)	51 (0.5)	86 (0.7)	3 (0.3)	11 (0.5)	14 (0.4)	63 (2.7)	157 (3.5)	220 (3.3)	101 (1.9)	219 (1.3)	320 (1.4)
기타		67 (3.4)	9 (0.1)	76 (0.6)	26 (2.7)	14 (0.6)	40 (1.3)	168 (7.2)	70 (1.6)	238 (3.5)	261 (4.9)	93 (0.6)	354 (1.6)
계		1,985 (100)	10,223 (100)	12,208 (100)	971 (100)	2,211 (100)	3,182 (100)	2,331 (100)	4,426 (100)	6,757 (100)	5,287 (100)	16,860 (100)	22,147 (100)

<표 7> 3개 학회지 연도별 자료형태 현황

단위: 건수(%)

자료 형태	2005		2006		2007		계		합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단행 본	518 (33.4)	1411 (24.0)	485 (26.6)	1416 (24.4)	484 (25.4)	1221 (23.5)	1487 (28.1)	4,048 (24.0)	5,535 (25.0)
학술 잡지	718 (46.2)	3997 (68.1)	959 (52.5)	3963 (68.3)	974 (51.0)	3528 (68.0)	2651 (50.1)	11,488 (68.1)	14,139 (63.8)
보고 서	115 (7.4)	276 (4.7)	103 (5.6)	244 (4.2)	120 (6.3)	225 (4.3)	338 (6.4)	745 (4.4)	1,083 (4.9)
학위 논문	71 (4.6)	24 (0.4)	51 (2.8)	15 (0.3)	102 (5.3)	17 (0.3)	224 (4.2)	56 (0.3)	280 (1.3)
학술 대회 자료	78 (5.0)	81 (1.4)	88 (4.8)	68 (1.2)	59 (3.1)	62 (1.2)	225 (4.2)	211 (1.3)	436 (2.0)
웹자 료	5 (0.3)	71 (1.2)	39 (2.1)	73 (1.3)	57 (3.0)	75 (1.4)	101 (1.9)	219 (1.3)	320 (1.4)
기타	48 (3.1)	10 (0.2)	100 (5.5)	20 (0.3)	113 (5.9)	63 (1.2)	261 (4.9)	93 (0.6)	354 (1.6)
계	1,553 (100)	5,870 (100)	1,825 (100)	5,799 (100)	1,909 (100)	5,191 (100)	5,287 (100)	16,860 (100)	22,147 (100)



<그림 3> 자료 형태별에 따른 국내·외 문헌 의존도

5. 언어별 인용 분석

연구자들이 인용문헌 이용 시 언어별로 선호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3개 학회지에 게재된 540편의 인용문헌 22,147건을 언어별로 조사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서반아어 순으로 영어로 쓰여진 문헌이 16,371건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한 반면, 한국어 문헌은 5,278건 약 24%로 연구자들은 한국어 문헌에 비해 영어로 쓰여진 문헌을 약 3배 정도 더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문헌의 인용비율은 『경영학연구』10,238건(83.8%), 『경제학연구』2,175건(68.4%), 『무역학회지』3,958건(58.6%) 순으로 『경영학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문헌은 『경제학연구』와 『무역학회지』에서는 각각 972건(30.5%)과 2,344건(34.7%)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경영학연구』에서는 1,962건(16.1%)으로 낮은 인용률을 나타냈다.

<표 8> 언어별 종합 분석(2005~2007)

단위 : 문헌수(%)

학회지 언어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	계
영 어	10,238(83.8)	2,175(68.4)	3,958(58.6)	16,371(73.9)
한국어	1,962(16.1)	972(30.5)	2,344(34.7)	5,278(23.8)
중국어	7(0.1)	1(0.03)	206(3.0)	214(1.0)
일본어	1(0.01)	12(0.4)	146(2.2)	159(0.7)
독일어	0(0)	15(0.5)	97(1.4)	112(0.5)
불 어	0(0)	6(0.2)	4(0.1)	10(0.05)
서반아어	0(0)	1(0.03)	2(0.03)	3(0.01)
계	12,208(100)	3,182(100)	6,757(100)	22,147(100)

영어와 한국어 이외의 문헌으로는 일본어 159건(0.7%)보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어문헌이 214건(1.0%)으로 일본어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학연구』에서는 중국어문헌이, 『경제학연구』에서는 독일어와 일본어 문헌이, 『무역학회지』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순으로 선호현상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타 불어와 서반아어 문헌의 활용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6. 인용빈도(수) 및 핵심잡지

인용지수는 특정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횟수를 그 기간 내의 당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수로 나눈 숫자, 즉 이 숫자가 높을수록 권위가 있고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저널임을 의미하게 된다.

사회과학분야의 경영, 경제, 무역 분야에서 인용률이 가장 높은 핵심잡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 학회지 540편에 인용된 학술잡지의 인용빈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은 <표 9>에서와 같다.

경영학회의 『경영학연구』, 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의 『무역학회지』에 나타난 인용빈도는 국내 잡지의 경우 『경영학연구』가 202회(7.6%)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무역학회지』 154회(5.8%), 회계학연구 95회(3.6%), 국제경영연구 76회(2.9%), 마케팅연구와 재무연구는 동일하게 72회(2.7%)로 나타났다. 『경제학연구』는 69회(2.6%)로 핵심잡지 7순위에 그치며 『경영학연구』나 『무역학회지』에 비해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외 잡지에서는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603회(5.2%),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3회(3.6%), Journal of Marketing 401회(3.5%),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66회(3.2%),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9회(2.3%) 순으로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국내문헌보다는 국외문헌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내·외를 종합한 핵심잡지 순위에서는 국내의 『경영학연구』가 202회(7.6%)로 국외의 Journal of Finance 212회(1.8%)에 이어 전체 10위권에 오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잡지에서는 누적인용비율 50%에 해당되는 경제 분석 20회(0.7%)를 포함한 24종이, 국외 잡지에서는 Research Policy 57회(0.5%)를 포함 36종의

학술잡지들이 연구비중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잡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잡지에서 인용순위 20위안에는 경영학분야 잡지 12개, 경제학 분야 5개, 심리학분야 2개로 경영학분야 잡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와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가 각각 11위와 18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학연구를 비롯한 이들 3개 학회지가 실험적 연구방법론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IS분야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바 있는 MIS Quarterly와 Management Science가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잡지 순위에서는 MIS Quarterly는 14위에, Management Science는 12위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 연구자들의 인용현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같이 미국 MIS분야에서 5개의 기본 잡지로 선정²²⁾된바 있는 핵심잡지들이 상위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 연구자들 간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론의 차이 및 연구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학문의 다변화 현상과 시대적 변화에 기인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핵심잡지 군을 다시 학회지별로 세분해보면 경영학회의 『경영학연구』에서 인용된 국내 학술잡지의 경우는 『경영학연구』가 150회(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계학 95회(7.5%), 재무연구 70회(5.6%) 순이며 인사관리연구와 마케팅연구도 각각 65회(5.2%)와 63회(5.0%)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방송연구, 광고학연구, 유통 및 지식경영 등이 25위권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국외 학술 잡지는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이 425회(5.4%),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5회(4.4%), Journal of Marketing 331회(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를 1990년부

22) C. Holsapple, L. Johnson & J. Tanner. 1993. "A Citation analysis of business computing research journals." *Information & Management*. 25: 231-244.

터 1996년까지 『경영정보학연구』와 『한국경영과학회지』 그리고 『경영학연구』에 실린 조사대상문헌의 인용문헌을 분석한 서은경²³⁾의 연구에서 밝혀진 『경영학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연구자들의 학술잡지 인용유형내지는 연구주제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는 1위와 2위에 올랐던 MIS Quarterly와 Management Science가 본 연구에서는 각각 12위와 10위로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졌으며, 전례 없던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이 급부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이한 현상은 15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심리학분야의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만은 변함없이 6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인용된 빈도(수)를 살펴보면 국내 학술잡지의 경우 『경제학연구』의 자기 인용률이 48회(12.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제경제연구 21회(5.4%)를 비롯해서 한국경제의 분석 19회(4.9%)와 사회경제평론 15회(3.9%), 경제 분석 14회(3.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혁신연구, 정보통신정책, 지역연구 등이 25위권에 오르고 있다.

외국 학술잡지에서는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American Economic Review가 110회(8.6%)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학술잡지로 나타났으며, Journal of Political Economy가 61회(4.7%), Econometrica 47회(3.7%), Review of Economic & Statistics 44회(3.4%) 순으로 국내의 경제학자들에게서도 American Economic Review가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영학과 무역학의 학문간 상호교류에 비해서 경제학자들은 경영학이나 무역보다는 자기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3) 서은경, 한인구. 전게서. pp.145-141.

<표 9> 경영·경제·무역 국내·외 핵심 잡지군(종합)

순위	학술지명(국내)	빈도수	인용률 (%)	누적 인용률 (%)	학술지명(국외)	빈도수	인용률 (%)	누적 인용률 (%)
1	경영학연구	202	7.6	7.6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603	5.2	5.2
2	무역학회지	154	5.8	13.4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3	3.6	8.8
3	회계학연구	95	3.6	17.0	Journal of Marketing	401	3.5	12.3
4	국제경영연구	76	2.9	19.9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66	3.2	15.5
5	마케팅연구	72	2.7	22.6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9	2.3	17.9
6	재무연구	72	2.7	25.3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31	2.0	19.9
7	경제학연구	69	2.6	27.9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1	1.9	21.8
8	인사관리연구	65	2.5	30.4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1.9	23.7
9	증권학회지	53	2.0	32.4	Journal of Finance	212	1.8	25.5
10	국제상학	52	2.0	34.3	American Economic Review	192	1.7	27.2
11	경영정보학연구	46	1.7	36.1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82	1.6	28.8
12	국제경제연구	46	1.7	37.8	Management Science	180	1.6	30.3
13	인사조직연구	38	1.4	39.2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0	1.4	31.7
14	한국심리학회지	34	1.3	40.5	MIS Quarterly	149	1.3	33.0
15	소비자학연구	32	1.2	41.7	Harvard Business Review	139	1.2	34.2
16	무역상무연구	29	1.1	42.8	Organization Science	132	1.1	35.4
17	산업경제연구	29	1.1	43.9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31	1.1	36.5
18	통상정보연구	28	1.1	45.0	Journal of Management	117	1.0	37.5
19	대한경영학회지	26	0.9	45.9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	1.0	38.5
20	국제통상연구	23	0.8	46.8	Journal of Retailing	116	1.0	39.6
21	경영연구	22	0.8	47.6	Econometrica	107	0.9	40.5
22	재무관리연구	22	0.8	48.5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3	0.8	41.3
23	한국경제의분석	21	0.7	49.3	The Accounting Review	90	0.8	42.9
24	경제분석	20	0.7	50.0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89	0.8	42.9
25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88	0.8	43.6
·								
36					Research Policy	57	0.5	50.4

한국무역학회의 『무역학회지』의 국내학술잡지에서는 자기 인용률이 147회(14.6%)로 경제학회보다는 2.2%, 경영학회보다는 2.7%로 무역학회지가 전체의 약 14.6%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국제경영연구 58회(5.8%), 국제상학 52회(5.2%), 경영학연구 47회(4.7%), 무역상무 연구 29회(2.9%)순으로 경영학분야의 핵심잡지들이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국외학술잡지에서는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가 233회(10.0%)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영학연구』에서 1순위에 올랐던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이 175회(7.5%)로 2순위에 오르고 있으며, Journal of Marketing도 69회(3.0%)로 『경영학연구』에서와 같이 3위에 그리고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이 65회(2.8%)로 5위권 이내의 핵심잡지들이 『경영학연구』에서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영학과 무역학분야간의 상호호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 학회지별 핵심잡지군 순위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체문헌 가운데 누적 인용률 50%를 차지하는 학술잡지로 『경영학연구』에서는 국내 11종(대한경영학회지-인용빈도 20회, 인용률 1.6%, 누적 인용률 51.4%까지)과 국외 26종(California Management Review-인용빈도 61회, 인용률 0.8%, 누적 인용률 50.5%까지), 『경제학연구』에서는 국내 14종(경제사학-인용빈도 6회, 인용률 1.5%, 누적 인용률 50.6%까지)과 국외 25종(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인용빈도 11회, 인용률 0.9%, 누적 인용률 50.6%까지), 『무역학회지』에서는 국내 16종(정보통신정책-인용빈도 9회, 인용률 0.9%, 누적 인용률 50.5%까지)과 국외 34종(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인용빈도 13회, 인용률 0.6%, 누적 인용률 50.2%까지)으로 분석되었다(표 10-14 참조).

즉, 사회과학분야의 경영·경제·무역학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수행시 50%에 해당되는 학술 잡지는 경영학은 국내 11종, 국외 26종, 경제학은 국내 14종, 국외 25종, 그리고 무역학은 국내 16종, 국외 34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표 10> 인용빈도(수)에 의한 학회지별 핵심 잡지군(국내)

순위	경영학연구	빈도수	인용률 (%)	경제학연구	빈도수	인용률 (%)	무역학회지	빈도수	인용률 (%)
1	경영학연구	150	11.9	경제학연구	48	12.4	무역학회지	147	14.6
2	회계학연구	95	7.5	국제경제연구	21	5.4	국제경영연구	58	5.8
3	재무연구	70	5.6	한국경제의분석	19	4.9	국제상학	52	5.2
4	인사관리연구	65	5.2	사회경제평론	15	3.9	경영학연구	47	4.7
5	마케팅연구	63	5.0	경제분석	14	3.6	무역상무연구	29	2.9
6	증권학회지	47	3.7	노동경제논집	13	3.4	통상정보연구	28	2.8
7	경영정보학연구	41	3.3	주택연구	11	2.8	국제경제연구	22	2.2
8	인사조직연구	35	2.8	경제연구	10	2.6	국제통상연구	20	2.0
9	소비자학연구	32	2.5	관광학연구	9	2.3	경제학연구	19	1.9
10	한국심리학회지	28	2.2	국토계획	8	2.1	관세학회지	19	1.9
11	대한경영학회지	20	1.6	자원환경경제연구	8	2.1	세계경제평론	16	1.6
12	경영연구	19	1.5	공공경제	7	1.8	산업경제연구	13	1.3
13	국제경영연구	18	1.4	금융학회지	7	1.8	중재연구	11	1.1
14	회계저널	18	1.4	경제사학	6	1.5	국제무역연구	9	0.9
15	전략경영연구	17	1.3	금융경제연구	6	1.5	마케팅연구	9	0.9
16	재무관리연구	16	1.3	경영학연구	5	1.3	정보통신정책	9	0.9
17	벤처경영연구	14	1.1	기술혁신연구	5	1.3	한국해운학회지	9	0.9
18	산업경제연구	14	1.1	무역학회지	5	1.3	관세와무역	8	0.8
19	세무학연구	11	0.9	경제발전연구	4	1.0	국제지역연구	8	0.8
20	방송연구	10	0.8	금융연구	4	1.0	무역구제	8	0.8
21	광고학연구	9	0.7	산림경제연구	4	1.0	세계경제	7	0.7
22	정보통신정책연구	9	0.7	재무관리연구	4	1.0	중소기업연구	7	0.7
23	한국마케팅저널	9	0.7	정보통신정책연구	4	1.0	한국경제연구	7	0.7
24	광고연구	8	0.6	증권학회지	4	1.0	경제분석	6	0.6
25	유통연구	8	0.6	지역연구	4	1.0	국제거래법연구	6	0.6
26	지식경영연구	8	0.6	한국경제연구	4	1.0	대한경영학회지	6	0.6

* 음영부분 : 누적인용비율(50%)에 해당

<표 11> 인용빈도(수)에 의한 학회지별 핵심 잡지군(국외)

순위	경영학연구	빈도수	인용률	경제학연구	빈도수	인용률	무역학회지	빈도수	인용률
1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25	5.4	American Economic Review	110	8.6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33	10.0
2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5	4.4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1	4.7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5	7.5
3	Journal of Marketing	331	4.2	Econometrica	47	3.7	Journal of Marketing	69	3.0
4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3	3.0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4	3.4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65	2.8
5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04	3.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43	3.4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4	1.9
6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96	2.5	Journal of Econometrics	33	2.6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6	1.5
7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81	2.3	Journal of Finance	28	2.2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6	1.5
8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7	2.3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	1.6	Harvard Business Review	35	1.5
9	Journal of Finance	155	2.0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	1.6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33	1.4
10	Management Science	152	1.9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	1.6	American Economic Review	31	1.3
11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1	1.9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1.6	Journal of Finance	29	1.2
12	MIS Quarterly	140	1.8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	1.6	Management Science	25	1.0
13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33	1.7	Economic Journal	19	1.5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3	1.0
14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23	1.6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8	1.4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21	0.9
15	Organization Science	109	1.4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5	1.2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1	0.9
16	Harvard Business Review	104	1.3	Review of Economic Studies	15	1.2	Organization Science	21	0.9
17	Journal of Management	102	1.3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	14	1.1	Econometrica	20	0.9
18	Journal of Retailing	101	1.3	Research Policy	14	1.1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 Finance	20	0.9
19	The Accounting Review	89	1.1	Applied Economics	13	1.0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20	0.9
20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87	1.1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	1.0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19	0.8
21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81	1.0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13	1.0	European Economic Review	15	0.6
22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80	1.0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 Management	12	0.9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5	0.6
23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75	1.0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2	0.9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5	0.6
24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72	0.9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 Control	11	0.9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5	0.6
25	Psychological Bulletin	69	0.9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11	0.9	Journal of Retailing	15	0.6
26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61	0.8	European Economic Review	10	0.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5	0.6
:									
34							The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13	0.6

* 음영부분 : 누적인용비율(50%)에 해당

<표 12> 인용빈도수에 따른 국내외 주요잡지(경영학연구)

순위	학술지명(국내)	빈도수	인용률 (%)	누적 인용률 (%)	학술지명(국외)	빈도수	인용률 (%)	누적 인용률 (%)
1	경영학연구	150	11.9	11.9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25	5.4	5.4
2	회계학연구	95	7.6	19.5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5	4.4	9.8
3	재무연구	70	5.6	25.0	Journal of Marketing	331	4.2	14.0
4	인사관리연구	65	5.2	30.2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3	3.0	16.9
5	마케팅연구	63	5.0	35.2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04	2.6	19.5
6	증권학회지	47	3.7	39.0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96	2.5	22.0
7	경영정보학연구	41	3.3	42.2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81	2.3	24.3
8	인사조직연구	35	2.8	45.0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7	2.2	26.6
9	소비자학연구	32	2.5	47.5	Journal of Finance	155	2.0	28.5
10	한국심리학회지	28	2.2	49.8	Management Science	152	1.9	30.5
11	대한경영학회지	20	1.6	51.4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1	1.9	32.4
12	경영연구	19	1.5	52.9	MIS Quarterly	140	1.8	34.2
13	국제경영연구	18	1.4	54.3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33	1.7	35.9
14	회계저널	18	1.4	55.7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23	1.6	37.4
15	전략경영연구	17	1.4	57.1	Organization Science	109	1.4	38.8
16	재무관리연구	16	1.3	58.3	Harvard Business Review	104	1.3	40.1
17	벤처경영연구	14	1.1	59.5	Journal of management	102	1.3	41.4
18	산업경제연구	14	1.1	60.6	Journal of Retailing	101	1.3	42.7
19	세무학연구	11	0.9	61.4	The Accounting Review	89	1.1	43.8
20	방송연구	10	0.8	62.2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87	1.1	44.9
21	광고학연구	9	0.7	63.0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81	1.0	46.0
22	정보통신정책연구	9	0.7	63.7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80	1.0	47.0
23	한국마케팅저널	9	0.7	64.4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75	1.0	47.9
24	광고연구	8	0.6	65.0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72	0.9	48.9
25	유통연구	8	0.6	65.7	Psychological bulletin	69	0.9	49.7
26	지식경영연구	8	0.6	66.3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61	0.8	50.5

<표 13> 인용빈도수에 따른 국내외 주요잡지(경제학연구)

순위	학술지명(국내)	빈도수	인용률 (%)	누적 인용률 (%)	학술지명(국외)	빈도수	인용률 (%)	누적 인용률 (%)
1	경제학연구	48	12.4	12.4	American Economic Review	110	8.6	8.6
2	국제경제연구	21	5.4	17.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1	4.8	13.4
3	한국경제의분석	19	4.9	22.7	Econometrica	47	3.7	17.1
4	사회경제평론	15	3.9	26.6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4	3.4	20.5
5	경제분석	14	3.6	30.2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43	3.4	23.9
6	노동경제논집	13	3.4	33.6	Journal of Econometrics	33	2.6	26.4
7	주택연구	11	2.8	36.4	Journal of Finance	28	2.2	28.6
8	경제연구	10	2.6	39.0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	1.6	30.3
9	관광학연구	9	2.3	41.3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	1.6	31.8
10	국토계획	8	2.1	43.4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	1.6	33.4
11	자원환경경제연구	8	2.1	45.5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1.6	35.0
12	공공경제	7	1.8	47.3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	1.6	36.5
13	금융학회지	7	1.8	49.1	Economic Journal	19	1.5	38.0
14	경제사학	6	1.6	50.6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8	1.4	39.4
15	금융경제연구	6	1.6	52.2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5	1.2	40.6
16	경영학연구	5	1.3	53.5	Review of Economic Studies	15	1.2	41.8
17	기술혁신연구	5	1.3	54.8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4	1.1	42.9
18	무역학회지	5	1.3	56.1	Research Policy	14	1.1	44.0
19	경제발전연구	4	1.0	57.1	Applied Economics	13	1.0	45.0
20	금융연구	4	1.0	58.1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	1.0	46.0
21	산림경제연구	4	1.0	59.2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13	1.0	47.0
22	재무관리연구	4	1.0	60.2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 Management	12	0.9	48.0
23	정보통신정책연구	4	1.0	61.2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2	0.9	48.9
24	증권학회지	4	1.0	62.3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1	0.9	49.8
25	지역연구	4	1.0	63.3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1	0.9	50.6
26	한국경제연구	4	1.0	64.3	European Economic Review	10	0.8	51.4

<표 14> 인용빈도수에 따른 국내외 주요잡지(무역학회지)

순위	학술지명(국내)	빈도수	인용률(%)	누적 인용률(%)	학술지명(국외)	빈도수	인용률(%)	누적 인용률(%)
1	무역학회지	147	14.6	14.6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33	10.0	10.0
2	국제경영연구	58	5.8	20.4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5	7.5	17.4
3	국제상학	52	5.2	25.5	Journal of Marketing	69	2.9	20.4
4	경영학연구	47	4.7	30.2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65	2.8	23.2
5	무역상무연구	29	2.9	33.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4	1.9	25.1
6	통상정보연구	28	2.8	35.9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6	1.5	26.6
7	국제경제연구	22	2.2	38.1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6	1.5	28.1
8	국제통상연구	20	2.0	40.1	Harvard Business Review	35	1.5	29.6
9	경제학연구	19	1.9	41.9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33	1.4	31.0
10	관세학회지	19	1.9	43.8	American Economic Review	31	1.3	32.4
11	세계경제평론	16	1.6	45.4	Journal of Finance	29	1.2	33.6
12	산업경제연구	13	1.3	46.7	Management Science	25	1.1	34.7
13	중재연구	11	1.1	47.8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3	1.0	35.7
14	국제무역연구	9	0.9	48.7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21	0.9	36.6
15	마케팅연구	9	0.9	49.6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1	0.9	37.5
16	정보통신정책	9	0.9	50.5	Organization Science	21	0.9	38.3
17	한국해운학회지	9	0.9	51.4	Econometrica	20	0.9	39.2
18	관세와무역	8	0.8	52.2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 Finance	20	0.9	40.1
19	국제지역연구	8	0.8	53.0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20	0.9	40.9
20	무역구제	8	0.8	53.8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19	0.8	41.7
21	세계경제	7	0.7	54.5	European Economic Review	15	0.6	42.4
22	중소기업연구	7	0.7	55.2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5	0.6	43.0
23	한국경제연구	7	0.7	55.9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5	0.6	43.7
24	경제분석	6	0.6	56.5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5	0.6	44.3
25	국제거래법연구	6	0.6	57.1	Journal of Retailing	15	0.6	44.9
26	대한경영학회지	6	0.6	57.7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5	0.6	45.6
27	수출보험학회지	6	0.6	58.3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4	0.6	46.2
28	정보통신정책연구	6	0.6	58.8	Applied Economics	14	0.6	46.8
29	통상법률	6	0.6	59.4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4	0.6	47.4
30	한국심리학회지	6	0.6	60.0	Journal of Management	14	0.6	48.0
31	한국항만경제학회지	6	0.6	60.6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4	0.6	48.6
32	경영정보학연구	5	0.5	61.1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3	0.6	49.1
33	관광학연구	5	0.5	61.6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13	0.6	49.7
34	대외경제연구	5	0.5	62.1	The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13	0.6	50.2

이 소수의 핵심잡지만으로도 연구자의 정보요구 50%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학술잡지의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문헌의 논문 540편에 인용된 학술잡지는 총 14,139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5회 이상 인용된 학술잡지는 450종(17.0%)이며, 이 가운데 100회 이상 인용된 학술잡지가 23종(0.8%), 200회 이상 인용된 학술잡지도 6종(0.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회만 인용된 학술잡지는 1,406종으로 전체의 약 53.0%에 이르고 있다. 경영, 경제, 무역 3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540편의 논문이 불과 몇 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5> 학술잡지의 이용 빈도

이용빈도 수	잡지수(종)			계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	
1	576(46.1)	259(56.8)	571(62.2)	1,406(53.6)
2	250(20)	68(14.9)	130(14.2)	448(17.1)
3	86(6.9)	30(6.6)	61(6.6)	177(6.8)
4	79(6.3)	24(5.3)	39(4.2)	142(5.5)
5	38(3)	12(2.6)	21(2.3)	71(2.7)
6~10	93(7.5)	31(6.8)	42(4.6)	166(6.3)
11~20	57(4.6)	22(4.8)	31(3.4)	110(4.2)
21~30	18(1.4)	3(0.7)	9(1)	30(1.1)
31~49	17(1.4)	5(1.1)	7(0.8)	29(1.1)
50~99	16(1.3)	1(0.2)	4(0.4)	21(0.8)
100~199	14(1.1)	1(0.2)	2(0.2)	17(0.6)
200~299	2(0.2)	0(0)	1(0.1)	3(0.1)
300회 이상	3(0.2)	0(0)	0(0)	3(0.1)
계	1,249(100)	456(100)	918(100)	2,623(100)

7. 발행연도별 분석

연구자들이 어느 시점에 출판된 문헌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정보가치의 규명은 물론 도서관 장서구성에 있어서도 ‘적서를 적시에 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헌의 가치를 연도별로 분석한다는 것은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기 보다는 단순히 연구자들이 문헌에 게재된 정보내용에 대해 어느 시대에 출판된 문헌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최신 자료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759년부터 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장기간에 걸쳐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개 학회지 모두 1990대 이후에 출판된 문헌에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 6.1%에서 2003년 6.4%, 2004년 5.6%까지 이 기간에 출판된 자료의 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2005년 4.4%, 2006년 2.5%, 2007년 0.6%이하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으로 볼 때 적어도 출판 후 4년이 경과되면서부터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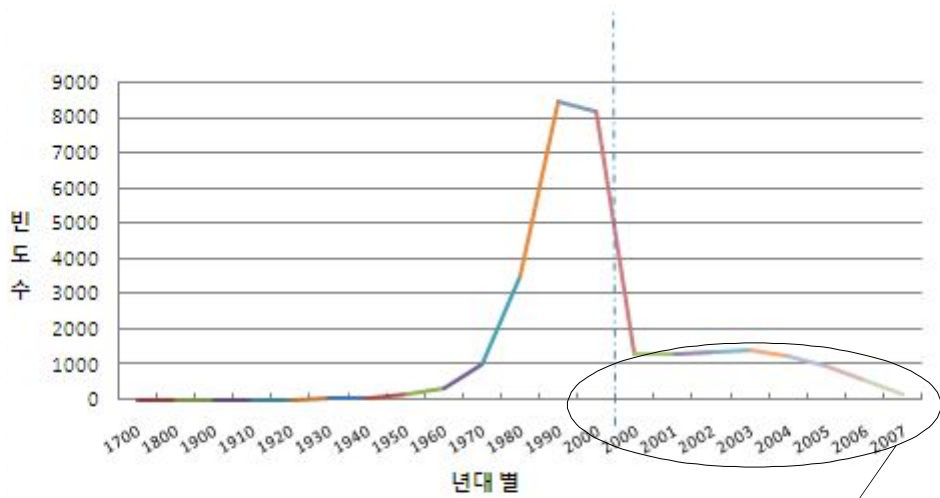
자료 연대의 최빈값은 경영학연구에서는 2000년 707건, 경제학연구에서는 2004년 226건, 무역학회지에서는 2004년 498건이며, 전체를 종합한 자료연대의 최빈값은 2003년 1,392건으로 확인되었다(표 16과 그림 4~5 참조).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문헌의 반 이상(76.5%)이 출판 된지 10년 이내의 문헌, 정확하게는 8.5년 정도의 문헌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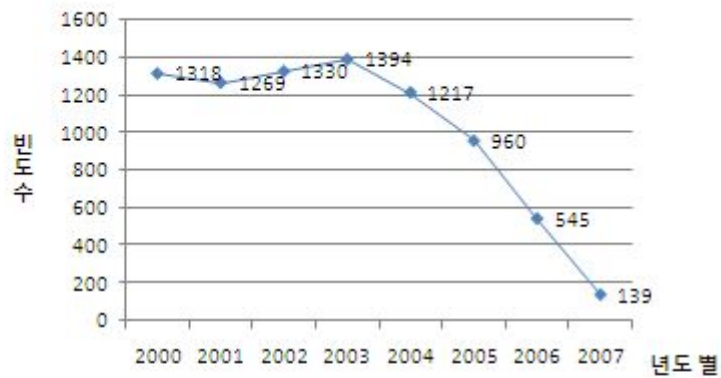
<표 16> 학회지별 자료 발행연도별 분포

단위 : 건수(%)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	전 체
1700년대	1 (0.01)	2 (0.1)	0 (0)	3 (0.01)
1800년대	2 (0.02)	6 (0.2)	5 (0.1)	13 (0.1)
1900년대	0 (0)	0 (0)	2 (0.03)	2 (0.01)
1910년대	0 (0.00)	2 (0.1)	2 (0.03)	4 (0.02)
1920년대	3 (0.02)	3 (0.1)	3 (0.05)	9 (0.04)
1930년대	17 (0.1)	13 (0.4)	8 (0.1)	38 (0.2)
1940년대	14 (0.1)	10 (0.3)	10 (0.2)	34 (0.2)
1950년대	71 (0.6)	69 (2.2)	21 (0.3)	161 (0.7)
1960년대	208 (1.7)	69 (2.2)	65 (1.0)	342 (1.6)
1970년대	625 (5.2)	151 (4.8)	233 (3.6)	1,009 (4.6)
1980년대	2,303 (19.1)	399 (12.6)	800 (12.3)	3,502 (16.1)
1990년대	5,055 (41.8)	1,126 (35.6)	2,291 (35.2)	8,472 (38.9)
2000년대	3,781 (31.3)	1,317 (41.6)	3,074 (47.2)	8,172 (37.6)
2000 년	707 (5.9)	182 (5.7)	429 (6.6)	1,318 (6.1)
2001 년	627 (5.2)	195 (6.2)	447 (6.9)	1,269 (5.8)
2002 년	676 (5.6)	188 (5.9)	466 (7.2)	1,330 (6.1)
2003 년	683 (5.7)	222 (7.0)	489 (7.5)	1,394 (6.4)
2004 년	493 (4.1)	226 (7.1)	498 (7.6)	1,217 (5.6)
2005 년	355 (2.9)	161 (5.1)	444 (6.8)	960 (4.4)
2006 년	195 (1.6)	108 (3.4)	242 (3.7)	545 (2.5)
2007 년	45 (0.4)	35 (1.1)	59 (0.9)	139 (0.6)
계	12,080 (100)	3,167 (100)	6,514 (100)	21,761 (100)



<그림 4> 자료의 생산연대(도)별 분포



<그림 5> 2000년 이후 발행연도별 종합 분석

8. 조사대상학술지의 수명 반감기 분석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3개 학회지인『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에 수록된 540편의 인용문헌이 출판된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용문헌의 반감기와 경과시간별 인용문헌 건수를 파악하여 출판년도에 따른 인용빈도수를 조사 후 Brooks(1970)의 이용률 감소모형을 사용하여 반감기를 계산하였다.²⁴⁾

논문이 발행 된 후 경과된 시간(t)과 누적 잔여이용가치(y) 사이의 관계는 음지수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y = e^{-t/a}$$

위 공식에서 상수인 $e^{-1/a}$ 를 a 로 대치시켜주면 $y = a^t$ 가 되고 여기서 a 는 수명감소인자(aging factor)이다. 발행 후 t년이 지난 후의 인용빈도수 $T(t)$ 는 $T(t) = Ra^t$ 가 되며 R 는 표본문헌의 총인용 빈도수이며,

$$\log T(t) = \log R + \log a \cdot t \quad (a)$$

가 된다. (a) 공식에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수명감소인자 값을 구하고, 반감기는

$$h = \log 0.5 / \log a$$

의 식으로 얻었다.

자료 형태별로 측정된 반감기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행본의 경우 국내 반감기는 10.9년이며(수명감소인자 0.9386), 국외 반감기는 11.1년(수명감소인자 0.9399)으로 나타났으며, 학술잡지의 경우는 국내 반감기 6년(수명감소인자 0.8923), 국외반감기는 8.2년(수명감소인자 0.9197)으로 국내 문헌보다는 국외문헌에서 다소 길게 측정되었다. 보고서는 국내 6.8년(수명감소인자 0.9039), 국외 7.2년(수명감소인자 0.9091)으로 학술 잡지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4) B. C. Brooks. 1970. "The growth, utility and obsolescence of scientific periodical literature." *Journal of Documentation*. 26: 283-294.

<표 17> 3개 학회지 반감기 종합

자료유형	분야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		전체	
		a	h	a	h	a	h	a	h
단행본	국내	0.8633	4.7138	0.9587	16.4220	0.9130	7.6164	0.9386	10.9309
	국외	0.9398	11.1620	0.9509	13.7804	0.9308	9.6634	0.9399	11.1895
학술 잡지	국내	0.8614	4.6455	0.9182	8.1255	0.8855	5.7016	0.8923	6.0835
	국외	0.9172	8.0190	0.9326	9.9375	0.9163	7.9306	0.9197	8.2773
보고서	국내	0.8413	4.0131	0.9279	9.2686	0.8327	3.7872	0.9039	6.8606
	국외	0.8775	5.3071	0.9155	7.8540	0.9144	7.7425	0.9091	7.2731

수명감소인자가 작을수록 반감기 수명도 짧아지며 자료 주기가 짧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Gupta(1990)²⁵⁾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과학분야의 반감기는 6년에서 7년으로, 자연과학분야의 반감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측정된바 있다. 이용률감소인자와 반감기의 다양성이 Kohurt(1974)와 Griffith(1979)에 의해 규명되었다. 특히 Griffith는 생의학잡지를 대상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 JCR(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의 인용문헌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문헌의 특정분야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특성도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였다. 다양한 이용자에게 의한 분산적 이용은 a값이 커서 적은 이용률감소를 보인 반면 전문화된 이용자에게 의한 집중적 이용은 a값이 작아 많은 이용률 감소를 나타냈다.^{26) 27)}

학회지별로 분석된 반감기는 <그림 6-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8.1 경영학연구의 반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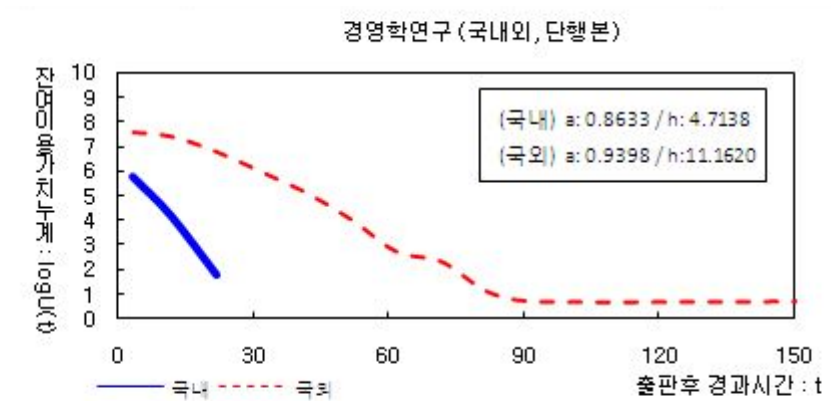
『경영학연구』의 이용률 감소현상을 분석한 반감기는 국내 단행본이 4.7년으로 아주 짧게 측정된데 반해 국외 단행본은 11.1년으로 매우 길

25) U. Gupta. 1990. "Obsolescence of Physics Literature." *JASIS*. 41(4): 282-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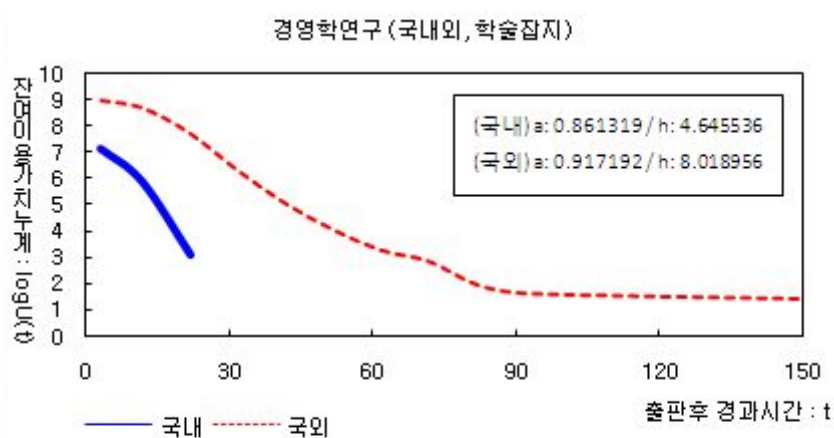
26) Joseph J. Kohurt. 1974. "A comparative analysis of obsolescence of the U.S. Geoscience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5(4): 242-251.

27) Belver Griffith, et al. 1979. "The aging on scientific literature : a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Documentation*. 35(3): 179-196.

게 대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국외문헌은 자료 발행 후 50년이 경과된 후에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자료는 최신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술잡지도 단행본과 비슷한 반감기양상을 보였다.



<그림 6> 경영학연구 반감기 (국내외,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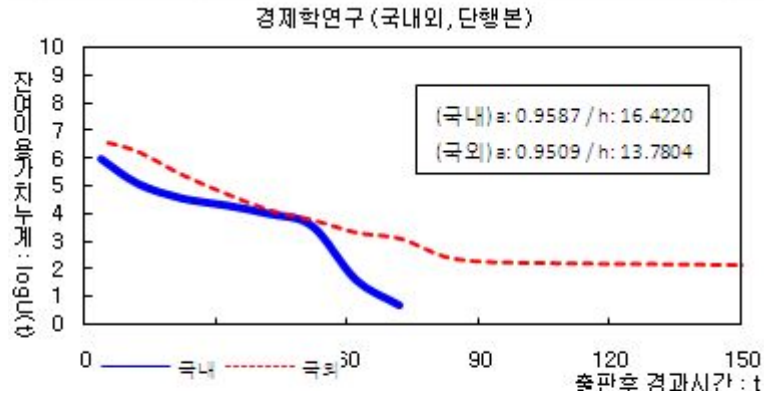


<그림 7> 경영학연구 반감기 (국내외, 학술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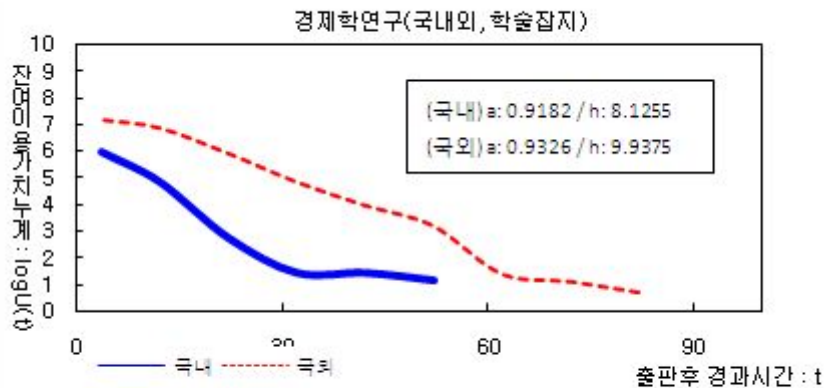
8.2 경제학연구의 반감기

『경제학연구』의 이용률 감소현상을 분석한 반감기 측정 결과 단행본의 경우는 기존연구자들의 결과와는 다르게 국내·외 자료의 반감기는

10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문헌은 16.4년, 국외문헌 13.7년으로 2.7년 정도 길게 나타났다. 학술잡지의 경우는 국내문헌의 반감기가 8.1년으로 국외문헌 반감기 9.9년 보다 다소 짧게 나타났다.



<그림 8> 경제학연구 반감기 (국내외,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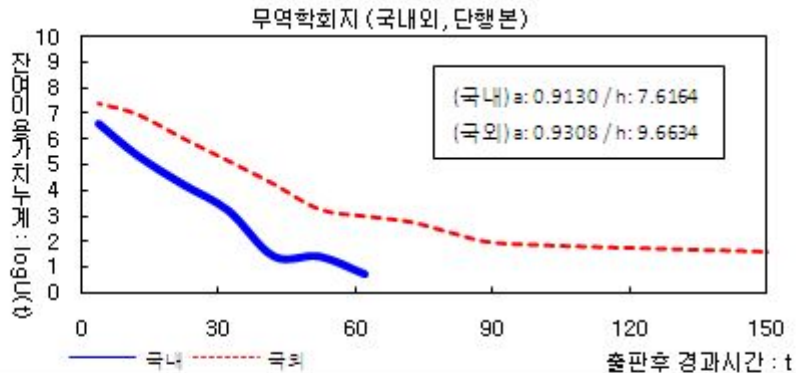


<그림 9> 경제학연구 반감기 (국내외, 학술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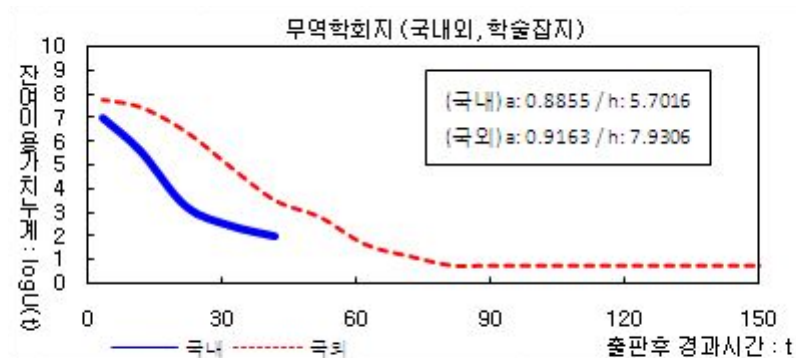
8.3 무역학회지의 반감기

『무역학회지』의 이용률 감소현황을 분석한 반감기 측정 결과는 국내 단행본 7.6년, 학술잡지 5.7년으로 국외문헌 단행본 9.6년, 학술잡지 7.9년에 비해 국내문헌의 반감기가 짧게 측정되었다. 연구자들은 국내문헌

을 참고할 시 단행본과 학술잡지는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면서도 국외 문헌은 발행 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 무역학회지 반감기 (국내외, 단행본)



<그림 11> 무역학회지 반감기 (국내외, 학술잡지)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의 인용문헌에 의해 측정된 국내·외를 종합한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전체 반감기는 다음과 같다(표 18~19, 그림 12~13 참조).

1) 단행본 반감기는 약 10.2년이다.

총 인용문헌 5,519건의 50%에 해당하는 2,715.5건이 나타내는 수치가 약 10.2년으로 측정된다.

2) 학술잡지의 반감기는 단행본에 비해 약간 짧은 약 7.1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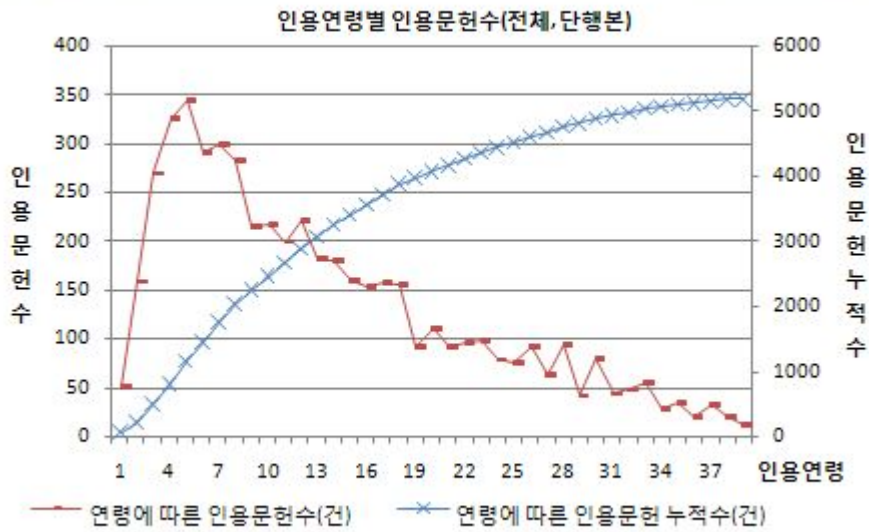
총 인용문헌 14,071건의 50%에 해당되는 7,056.8건이 나타내는 수치가 약 7.1년으로 추정된다.

<표 18>인용연령 대비 인용문헌수와 인용문헌누적수(전체,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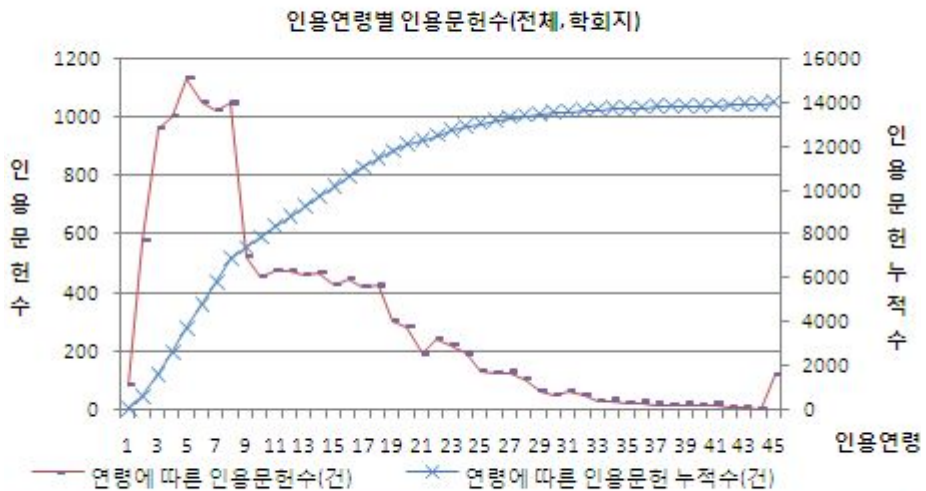
인용연령(년)	년수	연령에 따른 인용문헌수(건)	연령에 따른 인용문헌 누적수(건)	총인용문헌 대비율(%)	총인용문헌대비 누적비율(%)
0	2007	51	51	0.9	0.9
1	2006	159	210	2.9	3.8
2	2005	270	480	4.9	8.7
3	2004	326	806	5.9	14.6
4	2003	345	1151	6.3	20.9
5	2002	292	1443	5.3	26.1
6	2001	300	1743	5.4	31.6
7	2000	284	2027	5.1	36.7
8	1999	216	2243	3.9	40.6
9	1998	217	2460	3.9	44.6
10	1997	200	2660	3.6	48.2
11	1996	222	2882	4.0	52.2
12	1995	183	3065	3.3	55.5
13	1994	180	3245	3.3	58.8
14	1993	160	3405	2.9	61.7
15	1992	154	3559	2.8	64.5
16	1991	158	3717	2.9	67.3
17	1990	156	3873	2.8	70.2
18	1989	92	3965	1.7	71.8
19	1988	111	4076	2.0	73.9
20	1987	92	4168	1.7	75.5
21	1986	97	4265	1.8	77.3
22	1985	98	4363	1.8	79.1
23	1984	79	4442	1.4	80.5
24	1983	75	4517	1.4	81.8
25	1982	92	4609	1.7	83.5
26	1981	63	4672	1.1	84.7
27	1980	94	4766	1.7	86.4
28	1979	42	4808	0.8	87.1
29	1978	80	4888	1.4	88.6
30	1977	44	4932	0.8	89.4
31	1976	48	4980	0.9	90.2
32	1975	56	5036	1.0	91.2
33	1974	29	5065	0.5	91.8
34	1973	34	5099	0.6	92.4
35	1972	20	5119	0.4	92.8
36	1971	32	5151	0.6	93.3
37	1970	20	5171	0.4	93.7
38	1969	12	5183	0.2	93.9
39	1969~1776	336	5519	6.1	100
계		5519		100	

<표 19>인용연령 대비 인용문헌수와 인용문헌 누적수(전체, 학술잡지)

인용연령(년)	년수	연령에 따른 인용문헌수(건)	연령에 따른 인용문헌 누적수(건)	총인용문헌 대비율(%)	총인용문헌대비 누적비율(%)
0	2007	87	87	0.6	0.6
1	2006	581	668	4.1	4.7
2	2005	968	1636	6.9	11.6
3	2004	1006	2642	7.1	18.8
4	2003	1137	3779	8.1	26.9
5	2002	1055	4834	7.5	34.4
6	2001	1029	5863	7.3	41.7
7	2000	1053	6916	7.5	49.2
8	1999	526	7442	3.7	52.9
9	1998	456	7898	3.2	56.1
10	1997	478	8376	3.4	59.5
11	1996	477	8853	3.4	62.9
12	1995	463	9316	3.3	66.2
13	1994	472	9788	3.4	69.6
14	1993	431	10219	3.1	72.6
15	1992	453	10672	3.2	75.8
16	1991	423	11095	3.0	78.9
17	1990	427	11522	3.0	81.9
18	1989	305	11827	2.2	84.1
19	1988	286	12113	2.0	86.1
20	1987	194	12307	1.4	87.5
21	1986	244	12551	1.7	89.2
22	1985	224	12775	1.6	90.8
23	1984	194	12969	1.4	92.2
24	1983	136	13105	1.0	93.1
25	1982	128	13233	0.9	94.0
26	1981	130	13363	0.9	95.0
27	1980	108	13471	0.8	95.7
28	1979	64	13535	0.5	96.2
29	1978	50	13585	0.4	96.5
30	1977	67	13652	0.5	97.0
31	1976	53	13705	0.4	97.4
32	1975	31	13736	0.2	97.6
33	1974	35	13771	0.2	97.9
34	1973	26	13797	0.2	98.1
35	1972	28	13825	0.2	98.3
36	1971	21	13846	0.1	98.4
37	1970	16	13862	0.1	98.5
38	1969	20	13882	0.1	98.7
39	1968	19	13901	0.1	98.8
40	1967	20	13921	0.1	98.9
41	1966	12	13933	0.1	99.0
42	1965	12	13945	0.1	99.1
43	1964	5	13950	0.0	99.1
44	1963	121	14071	0.9	100
계		14071		100	



<그림 12> 인용연령별 인용문헌수(전체, 단행본)



<그림 13> 인용연령별 인용문헌수(전체, 학술잡지)

IV.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본 연구자의 분석결과와 학회지에 게재된 선행연구와의 결과를 항목별로 비교분석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저자사항

단독연구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공동연구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표 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영정보학과 회계학분야를 대상으로 저자분석을 한 서은경(1997, 1998)²⁸⁾²⁹⁾의 연구와 한국행정학보를 대상으로 연구한 배순자(2001)³⁰⁾의 연구에서는 단일저자가 공저자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단일저자보다 공저자가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단일저자에 의한 연구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공저자 현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학문의 전문화, 다양화 내지는 세분화로 인한 연구문제의 다양성과 학제적 성격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20> 저자사항 비교

연구자	분야	데이터 결과
서은경(1997)	경영정보학 (경영학)	· 단일저자(43%), 공저자(57%) · 경영정보(68%), 비 경영계열(32%)
서은경(1998)	회계학	· 단일저자(67%), 공저자(33%) · 경영계열(90%), 비 경영계열(10%)
배순자(2001)	행정학	단일저자(77%), 공저자(23%)
본 연구(2008)	경영 · 경제 · 무역	· 단일저자(25.5%), 공저자(74.5%) · 경제계열(73.6%), 비경영계열(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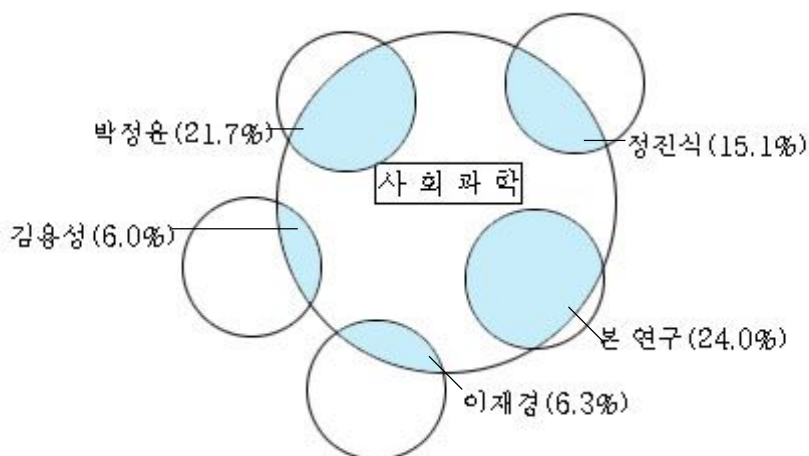
28) 서은경. 전계서. pp.145-165.

29) 서은경. 1997. 경영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경영정보학연구』. 7(3): 145-165.

30) 배순자. 전계서. pp.123-141.

2) 주제별 상관관계 분석

전반적으로 자 분야에 비해 타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타 분야 문헌으로는 사회학, 법학, 심리학, 수학, 철학 등 인문과학과 기술과학, 순수과학 영역까지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연구내용에 따라 타 분야 접근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타 주제 분야문헌 인용 분포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영역을 분석한 박정윤(1974)³¹⁾, 정진식(1983)³²⁾, 김용성(1989)³³⁾, 이재경(1998)³⁴⁾의 연구와 비교하면 각 연구자 모두 자 분야에 비해 타 분야 의존도는 6%에서 21% 정도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타 분야의 인접 주제영역으로는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타 분야 의존도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인접 주제영역으로 인문과학, 기술과학, 순수과학의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문간의 상호관계성을 살펴보면 박정윤(1978)³⁵⁾은 21.7%로, 정진식(1983)³⁶⁾은 15.1%, 김용성(1988)³⁷⁾ 6.0%, 이재

31) 박정윤. 1978. 한국경제학자들의 문헌이용동태 인용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32) 정진식. 전개서. pp.11-24.

33) 김용성. 1988.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원에 관한 인용문헌 분석. 『도서관학』. 15: 73-92.

34) 이재경. 1998.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인용문헌 분석. 『한국문헌정보학논집』. (5): 269-304.

경(1998)³⁸⁾ 6.3%로 연구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조사대상지와 연구수행 시기 등에서 기인되는 것이라 본다. 김용성은 경제학 분야 연구자들은 역사학 문헌을 가장 선호하며 수학, 철학 등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문헌까지 폭넓게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타 분야 의존도는 24.0%이다. 경제학 분야와 인접한 사회과학분야와 인문학 영역의 사회학, 법학, 심리학분야 문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자료형태별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학술정보 매체가 단행본에서 학술잡지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웹-자원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 시 선호하는 자료유형을 분석한 김용성(1989)³⁹⁾, 신은자(1993)⁴⁰⁾, 서은경(1997, 1998)⁴¹⁾⁴²⁾의 연구에서 볼 때 1989년 김용성의 연구에서는 단행본이 높게 나타났고, 1993년 신은자의 연구에서는 단행본과 학술잡지가 비슷하게, 1997년 이후 최근에 이르러 학술잡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문헌 의존도에서는 학술잡지를 비롯한 보고서와 웹자료는 국외문헌에서 높았고, 단행본을 비롯한 학술대회자료와 학위논문자료는 국내문헌에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웹자료와 신문, 회의자료 및 미간행 자료의 활용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강세를 보이고 있다.

35) 박정윤. 전게서. pp.85-98.

36) 정진식. 전게서. pp.11-24.

37) 김용성. 전게서. pp.7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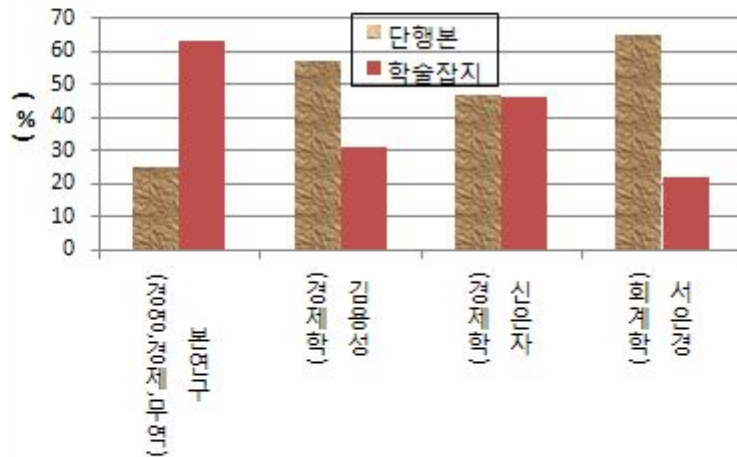
38) 이재경. 전게서. pp.269-304.

39) 김용성. 상게서. pp.73-92.

40) 신은자. 1993. 인용분석을 통한 문헌의 이용률 감소현상 및 장서폐기 연구. 『정보관리연구』, 24(4): 1-23.

41) 서은경. 전게서. pp.145-165.

42) 서은경. 전게서. pp.183-209.



<그림 15> 자료 형태별 비교

4) 언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영어로 쓰여진 문헌에 대한 선호도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림 16>에서와 같이 언어별 선호도를 분석한 김용성(1989)⁴³⁾, 서은경(1997, 1998)⁴⁴⁾⁴⁵⁾, 이재경(1998)⁴⁶⁾의 연구에서 보면, 사회학자들이 이용하는 문헌 중 절반 이상이 국외문헌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반 이상이 영어문헌으로, 자 분야 문헌에서는 영어문헌이 많고, 타 분야 문헌에서는 한국어 문헌이 많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은 절반이상이 영어로 쓰여진 문헌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어 문헌과는 약 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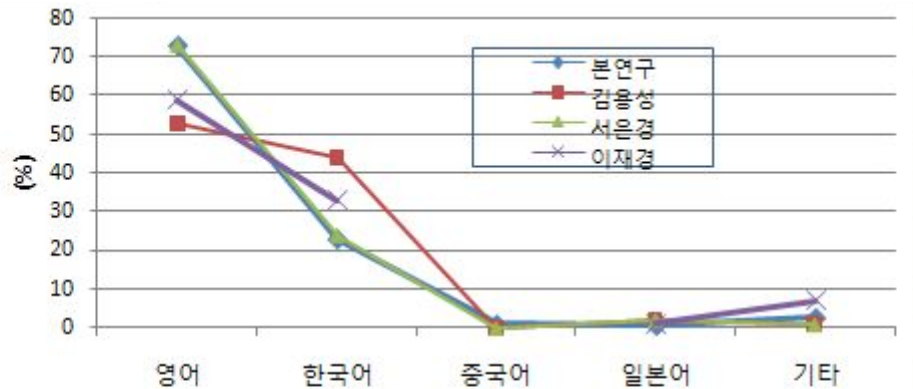
영어와 한국어 이외의 문헌으로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어문헌이 일본어 문헌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김용성. 전게서. pp.73-92.

44) 서은경. 전게서. pp.145-165.

45) 서은경. 전게서. pp.183-209.

46) 이재경. 전게서. pp.269-304.



<그림 16> 언어별 비교

5) 핵심잡지군

핵심저널 상위 20위권 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상위 5위권 이내에서는 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경영정보학연구』와 『한국경영과학회지』 그리고 『경영학연구』에 실린 조사대상문헌의 인용문헌을 분석한 서은경⁴⁷⁾의 연구에서 밝혀진 『경영학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핵심잡지 분석 시 인용빈도 분포를 분석하여 순위 분석한 결과와 본 연구논문의 결과는 학문주제 특성상 상위 순위는 다르나, 경영정보학 분야 중 전산 학분야를 제외하고 8개 학술잡지(MIS Quarterly, Management Science, Harvard Business Review,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가 같다.

본 연구에서 국외 학술잡지는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이 425회(5.4%),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5회(4.4%), Journal of Marketing 331회(4.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의 학술잡지 인용유행내지는 연구주제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는 1위와 2위에 올랐던 MIS Quarterly와 Management Science가 본 연구에서는 각각 12위와 10위로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졌

47) 서은경. 전게서. pp.145-165.

으며,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이 급부상하고 있다. 독특한 현상은 15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인문과학 분야의 심리학 학술잡지인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만은 변함없이 6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반감기

인문사회과학과 기술과학 문헌의 수명을 나타내는 반감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분야 문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반감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단행본의 수명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제학문헌(경영, 무역포함)을 비롯해서 국어학, 통계학, 영양학, 전자계산학, 원예학, 의학 등 각 주제 분야별 반감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과학 분야문헌을 분석한 박정윤(1978)⁴⁸⁾, 정진식(1985)⁴⁹⁾, 신은자(1993)⁵⁰⁾, 서은경(1998)⁵¹⁾, 박성미(1988)⁵²⁾의 연구에서는 각각 9.1년, 9.08년, 12.9년, 6.3년, 7.98년으로 측정되었으며, 인문과학 분야의 국어학문헌을 분석한 정준민(1978)⁵³⁾의 연구에서는 6년으로 측정되었다. 순수과학 분야의 영양학문헌을 분석한 김석영(1983)⁵⁴⁾과 원예학문헌을 분석한 김양순(1983)⁵⁵⁾의 연구에서는 각각 7년으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반면, 기술과학 분야의 전자계산학문헌을 분석한 최승주(1984)⁵⁶⁾는 3.32년, 의학문헌을 분석한 신정원(1974)⁵⁷⁾은 4.35년으로 분석되고 있

48) 박정윤. 전개서. pp.85-98.

49) 정진식. 1985. 경제학문헌의 반감기 연구. 『정보관리연구』. 18(4): 22-50.

50) 신은자. 1993. 전개서. pp.1-23.

51) 서은경. 전개서. pp.183-209.

52) 박성미. 1988. 한국 통계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5(1): 104-130.

53) 정준민. 1978. 국어학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54) 김석영. 1983. 한국영양학 논문의 인용 문헌분석. 『정보관리연구』. 16(3): 7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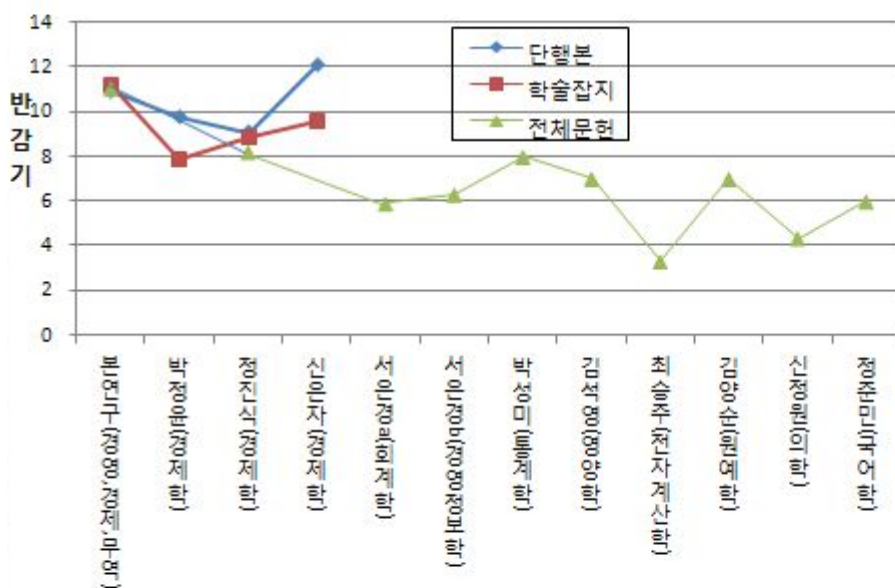
55) 김양순. 1983. 원예학문헌의 인용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56) 최승주. 1984. 전자계산학문헌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57) 신정원. 1974. 한국의학도서관에 있어서의 도서선택방법에 관한연구. 『한국비블리아』. 2: 264-295.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사회과학 분야문헌과 인문과학 분야문헌에서는 평균 8년 정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과학 분야의 의학과 전자계산학 문헌에서는 평균 4년 정도로 아주 짧게 나타나고 있어 학문분야 따라 문헌의 수명에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분야의 정보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속성에 따라 이용가치의 반감기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외로 볼 때 국내문헌의 반감기에 비해 국외문헌의 반감기가 길게 나타나므로 국외문헌은 비교적 장기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며, 국내문헌은 단기간 이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형태별 반감기는 시대의 흐름에는 무관하게 단행본이 학술잡지에 비해 길다.



<그림 17> 반감기 비교 분석

이상과 같은 반감기 연구결과와 핵심잡지군은 도서관 자료보존 및 폐기정책 수립 시 참고 되길 바라며, 특히 반감기측정은 연구자별로 상이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종합적 분

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논의된 내용은 사회과학분야의 부분적인 단순 데이터에 불과함으로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없음을 밝히 둔다.

V. 결론 및 제언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3개 분야의 학회지 『경영학연구』, 『경제학연구』,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총 540편의 연구논문과 이에 인용된 22,147건의 인용문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저자 수는 총 940명이다. 이 가운데 단독연구자는 240명(25.5%)이며 공동연구자는 700명(74.5%)이다. 공동연구에서는 2인 공저 428명(45.5%), 3인 공저 216명(23.0%), 4인 이상 공저 56명(6.0%)으로 2인 공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논문 1편당 저자 수는 평균 1.7명이다. 단독연구보다는 공동연구가 75%로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볼 때 단독연구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면서 공동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연구자들의 학술교류활동이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의 소속기관별로는 대학이 797명으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60명(6.4%), 은행을 포함한 일반기업 36명(3.9%), 정부부처 6명(0.6%)으로 저자들의 대다수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학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연구적 성향이 강한 교수들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둘째, 조사대상문헌과 인용문헌의 주제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① 조사대상 문헌 540편의 주제별분포 분석결과 경영과 무역을 포함한 경제학 447편(83%), 법학 21편(3.9%), 전자공학 15편(2.8%), 제조업 7편(1.3%), 심리학 7편(1.3%), 그리고 수학 6편(1.1%)과 기술과학 6편(1.1%) 순이다.

② 인용문헌의 단행본과 학술잡지 19,674건의 주제별 분포는 경제 14,989건(76.2%), 사회학 1,068건(5.4%), 심리학 902건(4.6%), 법학 303건(1.5%), 전자공학 298건(1.5%), 생명공학 203건(1.0%) 순이다.

인용문헌에서의 타 주제 분야 의존도는 경영학연구는 30.8%, 경제학연구는 24.1%, 무역학회지는 9.3%순으로 무역학회지에서만은 자기 분야 주제 의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인용문헌 22,147건을 대상으로 자료를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학술잡지 14,139건(63.8%), 단행본 5,535건(25.0%), 보고서 1,083건(4.9%), 학술대회자료 436건(2.0%), 웹자료 320건(1.4%), 학위논문 280건(1.3%)순이며, 기타는 354건(1.6%)으로 학술잡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언어별로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서반아어 순이다. 이 가운데 영어로 쓰여진 문헌이 16,371건으로 약 74%를 차지한 반면, 한국어 문헌은 5,278건 약 24%로 연구자들은 한국어 문헌보다는 영어로 쓰여진 문헌을 약 3배 정도로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

다섯째, 인용빈도(수) 및 핵심잡지 분석결과 국내 학술잡지의 경우 『경영학연구』가 202회(7.6%)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무역학회지』 154회(5.8%), 회계학연구 95회(3.6%), 국제경영연구 76회(2.9%), 마케팅연구 와 재무연구 는 동일하게 72회(2.7%)로 나타났다. 국외 학술잡지는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603회(5.2%),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3회(3.6%), Journal of Marketing 401회(3.5%),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66회(3.2%),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9회(2.3%) 순으로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핵심잡지에서 인용순위 20위안에는 경영학분야 잡지 12개, 경제학 분야 5개, 심리학분야 2개로 경영학분야 잡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각 학회지별 핵심잡지 누적 인용률 50%차지하는 학술잡지로 『경영학연구』에서는 국내 11종, 국외 26종, 『경제학연구』에서는 국내 14종, 국외 25종, 『무역학회지』에서는 국내 16종, 국외 34종으로 분석 되었다.

여섯째, 발행연도별 분석결과 1759년부터 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장기간에 걸쳐 폭넓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문헌의 반 이상 약 77% 정도가 출판 된지 10년 이내의 문헌, 정확하게는 8.5년 정도의 문헌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용문헌 분석에 의한 반감기는 단행본의 경우 국내는 10.9년이며(수명감소인자 0.9386), 국외는 11.1년(수명감소인자 0.9399)이다. 학술잡지의 국내 반감기 6년(수명감소인자 0.8923), 국외반감기는 8.2년(수명감소인자 0.9197)으로 국내문헌보다는 국외문헌에서 다소 길게 측정되었다. 반감기측정은 연구자별로 상이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3개 학문 분야의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과학문헌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인용문헌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사회과학분야 3종의 학술잡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에 근거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에 따라 이와는 다른 내용이 분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량서지학적 접근으로 가능한 객관적인 외형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주제 전문적인 부분은 다룰 수 없는 제한된 연구임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김석영. 1983. 한국영양학 논문의 인용 문헌분석. 『정보관리연구』. 16(3): 75-98.
- 김양순. 1983. 원예학문헌의 인용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용성. 1988.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원에 관한 인용문헌 분석. 『도서관학』. 15:73-92
- 김홍렬. 2005. 생명과학 학술지의 인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85-102.
- 박성미. 1988. 한국 통계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5(1): 104-130.
- 박정윤. 1978. 한국경제학자들의 문헌이용동태 인용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순자. 2001. 국내 행정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관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123-141.
- 서은경, 한인구. 1997. 경영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경영정보학연구』. 7(3): 145-165.
- _____. 1998. 회계학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회계학연구』. 23(3): 183-209.
- 신은자. 1993. 인용분석을 통한 문헌의 이용률 감소현상 및 장서폐기 연구. 『정보관리연구』. 24(4): 1-23.
- 신정원. 1974. 한국의학도서관에 있어서의 도서선택방법에 관한연구. 『한국비블리아』. 2: 264-295.
-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 유경희. 1971. 과학정보의 수명측정에 관한 연구. 『도서관』. 26(7): 4-10.
- 이재경. 1998. 한국 사회학자들의 인용문헌 분석. 『한국문헌정보학논집』. (5): 269-304.
- 정준민. 1978. 국어학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진식. 1983. 경제학문헌의 반감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대학원.
- _____. 1985. 경제학문헌의 반감기 연구. 『정보관리연구』. 18(4): 22-50.
- 조인숙, 한미숙. 2007.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학회지 게재논문과 인용학술지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89-105.
- 조현양, 조현선. 2005. 주요 4개 공학분야 연구자의 문헌인용 행태 연구. 『정보관리연구』. 36(2): 1-24.
- 中村天理. 1970. "農學分野における文獻情報利用調査の 展望とCitation counting の展開."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 51-70.
- 최승주. 1984. 전자계산문헌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태천. 2000. 한국행정논집 분석-행정학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2(4): 781-802.
- Brooks. B. C. 1970. "The growth, utility and obsolescence of scientific periodical Literature." *Journal of Documentation*. 26: 283-294.
- Egghe, L., and Ronald Rousseau. 1990. Introduction to Informetrics: Quantitative methods in library.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Dulle, F. W., M. J. F. Lwehabura, D. S. Matovelo, R. T. Mulimila. 2004. "Creating a core journal collection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anzania : Citation analysis and user opinion techniques." *Library Review*. 53(5): 270-277.
- Earle, P. and B. C. Vickery. 1969. "Social science literature use in the U.K. as indicated by ci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25(2): 123-141.
- Griffith, Belver, P. N. Servi, A. L. Anker, M. C. Drott. 1979. "The aging on scientific literature : a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Documentation*. 35(3): 179-196.
- Gupta. U. 1990. "Obsolescence of physics literature." *JASIS*. 41(4): 282-287.
- Haycock, Laurel A. 2004. "Citation analysis of education dissertations for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48(2): 14-19.

- Holsapple, C., L. Johnson & J. Tanner. 1993. "A citation analysis of business computing research journals." *Information & Management*. 25: 231-244.
- Kohurt, Joseph J. 1974. "A comparative analysis of obsolescence of the U. S. Geoscience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5(4): 242-251.
- Over, R. 1990. "The scholarly input of articles published by men and women in psychology journals." *Scientometrics*. 18: 331-340.
- Sangam, S. L. 1989. "Information use pattern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psychology: a citation study." *IASLIC Bulletin*. 34(2): 55-63.
- Summers, G. E. 1984. "A review and application of citation analysis methodology of reading research formal literature."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5(6): 332-343.
- Udofia, Iton. 1997. "Selecting veterinary periodicals through citation analysis." *Library Review*. 56(2): 105-112.
- Zunde, P. 1971. "Structural models of complex information sources." *ISR*. 7(1): 1-18.

ABSTRACT

A Study on the Citation Analysis of Social Science Literature - Focused on Business Administration·Economics·Trade -

Won, Jiwook

Major in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guidance of practical use and giv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o set the lifetime of the library book collections, policy of scrap the old documents, and the general services using statistical half-life period analysis according to the type of literatures, index term, core journal, and by published year. For the analysis, the classification of the reference on the published paper has been used in this study especially on Social Sciences including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and Trades. The popular domestic journals used in this paper are 'Korean Management Review', 'The Korean Economic Review', and 'Journal of Korea Trade' for three years from 2005 to 2007 which are 540 articles and 22,147 cited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tal number of the authors is 940. Among this, there are 240 single author (25.5%) and 700 multiple authors (74.5%). Multiple authors consist of 428 two authors (45.5%), 216 three authors (23.0%), 56 four or more authors (6.0%). Two authors are the most popular and average of

the number of authors is 1.7 per paper. Multiple authors rate (74.5%) is around three times higher than single author. Multiple authors are getting more and more than single author year after year and it reveals getting more collaborated their works. Affiliation of authors is 817 from university (87.0%), 60 from research institute (6.4%), 36 from company including bank (3.9%) and 6 from government (0.6%). It comes out mostly from university and that because of most of the research activity lead by professors.

Second, main topic classification of the documents and references are as follows. ① 447 of Economics including Business and Trades (83.0%), 21 of Laws (3.9%), 15 of Electrical Engineering (2.8%), 7 of Manufacturing (1.3%), 7 of Psychology (1.3%), 6 of Mathematics (1.1%), and 6 of Technology (1.1%) out of the 540 research documents. ② 14,989 of Economics (76.2%), 1,068 of Sociology (4.6%), 303 of Laws (1.5%), 298 of Electrical Engineering (1.5%), 203 of Biotechnology (1.0%) out of the 19,674 only for book and journal references. Dependency rate for other topics is 30.8 % for 'Korean Management Review', 24.1 % for 'The Korean Economic Review', 9.3 % for 'Journal of Korea Trade' which shows relatively high independent rate.

Third, results from the type of the literatures on 22,147 references are 14,139 journals (63.8%), 5,535 books (25.0%), 1,083 reports (4.9%), 436 proceedings (2.0%), 320 internet (1.4%), 280 thesis (1.3%), and 354 others (1.6%) which shows journal is the dominant.

Fourth, descending order language dependency on references is English, Korean, Chinese, Japanese, German, French, and Spanish, respectively. Authors prefer to use English (16,371 references 74%) than Korean (5,278 references 24%) which is more than three times.

Fifth, results for the citation rate and popular journal list are 202 from 'Korean Management Review' (7.6%), 154 from 'Journal of Korea Trade' (5.8%), 95 from 'Korean Accounting Review' (3.6%),

76 from 'Korea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9%), and 72 each from 'Korean Marketing Review' and 'Korean Finance Review' (2.7%) for domestic journals. For international journals, 603 fro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2%), 413 from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 401 from *Journal of Marketing* (3.5%), 366 fro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2%), and 269 from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 There are 12 Business journals, 5 Economics journals, and 2 Psychology journals on top 20 popular journal list. The number of accumulate citation rate over 50 % on each popular journal is 11 domestics and 26 internationals on 'Korean Management Review', 14 domestics and 25 internationals 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and 16 domestics and 34 internationals on 'Journal of Korea Trade'.

Sixth, references are used very large range of published year from as old as 1759 to 2007 after statistical review. Over 77% of references are published before around 10 year-old, specifically 8.5 year-old documents have been used the most.

Finally, half-life period by cited literature statistic analysis is 10.9 years for domestic books (aging factor 0.9386) and 11.1 years for international books (aging factor 0.9399). For the journals, it is 6.0 years for domestic (aging factor 0.8923) and 8.2 years for international (aging factor 0.9197) which tells international articles are slightly longer half-life period than domestics.